

2010

BIPAF | 연극의 경계선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B U S A N
INTERNATIONAL
PERFORMING
A R T S
F E S T I V A L

지역경제의 희망을 만듭니다!

영상, 항만, 제조...

지역산업에 희망의 기운을 전하는 부산은행!

지역경제의 부활을 넘어

고객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BS부산은행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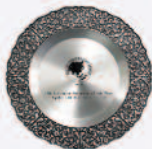
한진중공업의 큰 꿈이 세상의 희망을 열어줍니다.

한진중공업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도전의 여정! 세계적인 조선사,
건설산업의 리더로 최첨단 선박에서 조선소,
공항, 빌딩까지 더 큰 꿈과 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생명보험사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보생명
입니다.



교보생명 '2009 아시아 최고 생명보험사 賞' 수상



글로벌 보험 전문가의 심사 마이클 모리세이 세계보험협회 회장, 패트릭 문 중국 태평양보험 회장, 타카시 요시키와 동경해상 아시아 회장, 크리스토퍼 호 싱가포르 재보험협회장 등 22명의 글로벌 보험 전문가와 경영자들로부터 아시아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고 생명보험사 선정**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 발 앞선 리스크 관리와 퀄리티 경영을 통해 업계 1위의 당기순이익과 안정적 지급여력비율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적 신뢰와 권위 획득** 아태지역 20여개국 150여개의 보험회사들이 참여한 세계 재보험 컨퍼런스(International Reinsurance Conference)에서 한국 생명보험사 최초로 수상하여 국제적인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은행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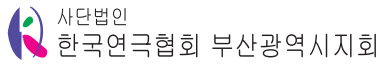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The Embassy of Italy



주한이탈리아문화원
Italian Cultural Institute - Seoul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usan Water Authority



부산예술대학
BUSAN ARTS COLLEGE



부산경상대학



KYOBO 교보생명



한진중공업그룹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GROUP



RF/ID 전문기업
주케이네트웍스

생탁



Busan Youth Hostel
ARPINA



해운대센텀호텔
HAEUNDAE CENTUM HOTEL



부산대학교병원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나누는문화 아름다운세상
영도문화예술회관
YEONGDO CULTURE & ARTS CENTER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www.busanmbc.co.kr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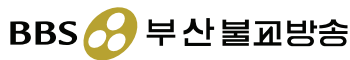


TBN 한국교통방송



부산극동방송

부산 CBS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원음방송 104.9



BCB 부산평화방송



호원메디컬(주)
Hyowon Medical Co., Ltd.

행사개요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기간 : 2010. 5. 1(토) ~ 10(월) <10일간>

장소 :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용천지랄소극장 등 부산시내 공연장

컨셉 : 연극의 경계선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Main Copy : 연극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참여규모 : 6개국 18작품(국외 6작품, 국내 12개 작품)

참여국가 :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대만 (6개국)

축제구성

- 개·폐막 행사 : 개·폐막작 공연
 - 개막공연 : 5월1일(토)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코메디] (프랑스)
 - 폐막공연 : 5월10일(월) 20: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슬람 수학자] (한국)
- 개막리셉션 : 5월1일(토)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동백홀
- 프로그램
 - BIPAF MAIN STAGE (연극의 경계선)
 - BIPAF OPEN (가족극 / 우수극 / 소극장스테이지)
 - BIPAF TOGETHER (부대행사)
- ※ BIPAF ZONE : 국제공연예술교류, 국내·외 공연축제자료 전시회
- ※ BIPAF 워크숍 / BIPAF 펀드 / 비파프 투어 등
 - 10분 연극제 : 시민 연극 경연대회
 - BIPAF TOUR : 웨도우오케스트라 (영도문화예술회관)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0

Period May 1(Sat.), 2010 ~ May 10(Mon.), 2010

Venue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 Kyung-Sung University / YongCheon Jiral Small Theater

Theme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Main Copy What are the boundaries of theater?

Participation 18 performances from 6 countries(6 foreign performances and 12 Korean performances)

Participant Countries France, Italy, Japan, Korea, Russia, Taiwan

Festival Setup

- **Opening · Closing Ceremony** : Opening / Closing performance
 - Opening performance: May 1st(Sat) 18: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COMEDY] (France)
 - Closing performance: May 10th(Mon) 20: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The Man Who Counted] (Korea)
 - Opening Reception : May 1st(Sat), Young Bin Hall, Dong Baek Hall, Busan Cultural Center
- **Program**
 - BIPAF MAIN STAGE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 BIPAF OPEN (Family Theater / Special Theater / Small Theater Stage)
 - BIPAF TOGETHER (Special Event)
- * BIPAF ZONE
 - :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Exchange Program
 - : Exhibition of Performing Arts Festivals in and outside Korea
 - * BIPAF Workshops / BIPAF Fund / Events for Citizens' Participation etc.
- The 10 Minute Open Plays : Citizen Theater Contest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 Organizing Committee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공연일정표

Performance Schedule

Main 우수극 가족극 소극장스태이지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구 분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	18:00	19:00			19:00	20:00			19:00	20:00
	프랑스 코메디				꿈꾸는 화석 (부산연극제 대상)				이슬람 수학자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	10분 연극제 준비	10분연극제 예선		초청 강연회	10분 연극제 예선		20:00	19:00		
							세번째 전환		10분 연극제 본선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16:00 19:00	20:00		14:00 18:00	11:00 14:30		19:00	19:00	
		아름다운살인자! 보이백			에델아 같이놀자			이탈리아 마네킹의 눈물		
경성대 콘서트홀				20:00	16:00 19:00			16:00 19:00	19:00	
					프랑스 그림자 오케스트라			러시아 잔혹함의 미학		
경성대 예노스극장		16:00 19:00	20:00				20:00	16:00 19:00		
		추격자						일본 슬로닌 왈츠		
경성대 멀티미디어 소극장					16:00 19:00	16:00 20:00	20:00			
					대만 나는 또 다른 너					
문화골목 용천지탈 소극장					20:00	20:00	19:00			
					학수고대					
경성대 교내 (야외공연)			20:00	20:00						
			오이디푸스							
공간 소극장	16:00 19:00	17:00		20:00	15:00 18:00	20:00	20:00	16:00 19:00	17:00	
	바쁘다 바빠									
초콜릿 팩토리	16:00 19:00	14:00 17:00		20:00	14:00 17:00	20:00	20:00	16:00 19:00	14:00 17:00	
	그 남자 그 여자									
6번출구 소극장		17:00	20:00	20:00	17:00	20:00	20:00	17:00	17:00	
	비나리									
청춘나비 소극장							20:00	16:00 19:00	17:00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MAIN Best Play Family Play Small Theater
 ★ The letters in red mean 'Q&A with performers'

구 분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18:00	19:00			19:00	20:00			19:00	20:00
	France Comedy				Dreaming Fossil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2010				The Man Who Counted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Preparation for the 10 Minute Open Plays	Preliminary for the 10 Minute Open Plays						20:00	19:00	Finals for the 10 Minute Open Plays
								The Third Turn		
Small Hall of Busan Citizen's Hall		16:00 19:00	20:00		14:00 18:00	11:00 14:30		19:00	19:00	
		Beautiful Murderer! Woyzeck			Imaginary Life of Everyday Objects			Italy Treatise of Mannequins		
Concert Hall of KyungSung University				20:00	16:00 19:00			16:00 19:00	19:00	
					France The Shadow Orchestra			Russia Bertrand's Toys		
Yeno Hall of KyungSung University		16:00 19:00	20:00				20:00	16:00 19:00		
		Chaser						Japan Slow-nin Waltz		
Multimedia Hall of KyungSung University					16:00 19:00	16:00 20:00	20:00			
					Taiwan I Am Another Yourself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20:00	20:00	19:00			
					Anticipation					
Outdoor performance in KyungSung Univ.				20:00	20:00					
				Oedipus-Ruin						
SH Gonggan Theater	16:00 19:00	17:00		20:00	15:00 18:00	20:00	20:00	16:00 19:00	17:00	
	Eight Days a Week									
Chocolate Factory	16:00 19:00	14:00 17:00		20:00	14:00 17:00	20:00	20:00	16:00 19:00	14:00 17:00	
	A Man from Mars, A Woman from Venus									
Yukbeon Choolgu Theater		17:00	20:00	20:00	17:00	20:00	20:00	17:00	17:00	
	Binari									
Cheongchoon Nabi Theater							20:00	16:00 19:00	17:00	
	Born Ugly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컨셉

The Theme of 7th BIPAF

연극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연극의 경계선

연극과 연극 아님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경계선이 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없을까? 서양의 고전극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왔고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경계선은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형식과 내용에서 다분히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날에는 연극의 모습이 워낙 다양해서 공연예술 전반으로 넓게 확대되는 추세다.

더불어 예술 전반에 걸쳐 장르가 해체 파괴되고 있는 위에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해서 연극 무대는 총체적인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올해는 이런 경향을 지닌 작품들을 모아서 이 시대의 연극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연극과 연극 아님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어떤지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관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What are the Boundaries of Theater?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Is there any theory that supports the boundaries of theater? Western classical plays have had clear standards and boundaries according to several principles. However, the boundaries started to break down after the World War II.

There has been chaos in terms of the form and contents of theater performances because of the lack of boundaries. Today the theater tends to extend to all performing arts because of the many various styles.

Moreover, the theater stage is being degenerated to the general stage because of new and various medias, which destroy specific genres in the overall arts.

This year, BIPAF plan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is generation's theater; explore and experience whether there are the boundaries of theater or not by collecting the performances that match that theme.

목차 Contents

공연일정표	07	Performance Schedule
컨셉	08	Theme
인사말	10	Greetings
축사	16	Congratulations
PERFORMANCE-BIPAF Main	19	PERFORMANCE-BIPAF Main
코메디	20	Comedy
이슬람수학자	22	The Man Who Counted
슬로닌 왈츠	24	Slow-nin Waltz
세 번째 전환	26	The Third Turn
잔혹함의 미학	28	Bertrand's Toys
마네킹의 눈물	30	Treatise of Mannequins
오이디푸스	32	Oedipus Ruin
극장정보	34	Theater Information
PERFORMANCE-BIPAF Open	35	PERFORMANCE-BIPAF Open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척	36	Beautiful Murderer! Woyzeck
추격자	38	Chaser
꿈꾸는 화석	40	Dreaming Fossil
그림자 오케스트라	42	The Shadow Orchestra
나는 또 다른 너	44	I Am Another Yourself
애들이 같이 놀자	46	Imaginary Life of Everyday Objects
학수고대	48	Anticipation
소극장 스테이지	50	Small Theater Stage
티켓 안내	52	Ticket Information
BIPAF TOGETHER	53	BIPAF TOGETHER
10분 연극제	54	The 10 Minute Open Plays
BIPAF 워크숍	55	BIPAF Workshop
초청강연회	55	Seminar
관객과의 대화	56	Q&A with performers
BIPAF ZONE	56	BIPAF ZONE
청소년 여름 연극캠프	57	Summer Theater Camp for Youth
BIPAF 투어	58	BIPAF TOUR
조직위원회	63	Organizing Committee
사무국소개	64	Introduction of BIPAF Office
자원봉사자	65	Volunteer

인사말 Greeting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Huh, Nam Shik
Busan International Per-
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President

Huh Nam Shik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공연과 열정으로 부산국제연극제를 이끌어 오신 김동규 집행위원장과 국내외 연극인 여러분, 우리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연극과 예술에 대한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봄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으며 우리 공연예술계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자랑스러운 문화 자산인 부산국제연극제가 힘든 시기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위안, 희망을 전해드리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의 부산국제연극제는 “연극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연극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에 온 가족이 연극 나들이를 나오셔서,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우리 어른들은 삶의 진실을 함께 찾아보는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부산국제연극제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7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제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거듭 성장하여 아시아 최고의 공연예술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happily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d it not been for Festival Director Kim, Dong Kyu and theatrical people in and outside of Korea who have led the festival with their passion and high quality performance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uld not have become the great festival it is. We must also thank the great people who give their love and attention to further Busan's cultural development and to the citizens for their love of the theater and arts.

There have been many accident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Spring and the world of performing arts is facing hard times along with the country and the world.

However, I think that the real value of the arts is to talk about hopes in life and deliver dreams and touching moments to everyone especially during hard times.

I hope that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hich is a great cultural asset in Busan, becomes a festival that gives touching moments, solace and hope to everyone in both hard times and happy times.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ll include many special events and performances of superior quality they will help us reconsider the meaning of performance arts and help us "Define the Boundaries of Theater".

I hope that all families have an opportunity to watch the performances in May, Korea's month to celebrate families. Let the children's imaginations be awakened and let them discover the truth of life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 am happy to se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rive and become a worldwide theater festival and the best performing arts festival in Asia.

Please keep showing your patronage, love and attention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ank you.

부산국제연극제, 연극의 경계를 가늠하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이 겹쳐들어 화사한 봄이면서도 축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어쩔지 할 짝 개이지 않은 채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연형태는 뮤지컬과 시낭송(詩朗誦)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그냥 듣지 않고 보다 화려하게 보고 듣는 문화로, 집에서 혼자 읽던 시집조차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듣는 품격 있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인접한 예술 간의 벽(장르)이 해체되고 허물어져 시각적, 종합적으로 창조됨을 뜻하며 연극이 언어를 벗어 던지고 신체, 무언극, 음악, 무용, 무술, 서커스, 마술과 손잡고 이때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공연되는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뜻 합니다. 꼭 연어가 아닌 인접예술에도 감정이 있고 극(劇)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연극의 경계>라는 지표(Concept)로 여러분과 만나려합니다. 문화향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나 여망을 반영하려는 시도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뜨겁고 적극적인 참여와 냉정한 평가를 기대하면서 2010년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를 개막합니다.

이 축제를 도와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관계관들과 Culture France(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센터),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예술 협력과 그리고 국내 각 언론기관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이사벨라 쾨빈스카(전폴란드 문화부장관, 바르샤바 아테네움 예술감독), 그렉 제르망(아비뇽축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며 축제준비를 위해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부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장
김 동 규

Kim, Dong Kyu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Festival Director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defines the boundaries of theater

We are facing hard times both in and outside the country at present, and we are having our 7th festival without feeling the pleasure for the spring and the festival.

Lately, the form of performance in Korea is mainly composed of musicals and poem reading, and it is being changed into high class culture. For example, many people gather and read poems together these days.

This means that the wall of genres between the arts breaks down and it creates overall visual arts. It also signifies that the theater takes the language away and combines the body with nonverbal performance, music, dance, martial arts, circus and magic. The trend is that the arts are performed in many different forms. It is because there are emotions and plays and not only in languages but also arts.

Therefore, the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is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We made a great effort to meet the citizens' high expectations and we expect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critical reviews. The 7th International Busan Performing Arts Festival 2010 starts right now.

I welcome IZABELLA CYWIŃSKA, forme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Polish Culture, artistic manager of the Athenaeum Theater in Warsaw and GREG GERMAIN, President of Avignon OFF Festival. I give thanks to everyone who supported the festival includi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bassy of France in Korea and its cooperation for culture and arts and media organizations in Korea.

인사말 Greeting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Yu, In Chon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푸른 바다 반짝이는 화사한 봄날의 부산에서, 변화하는 연극의 세계적 흐름과 마주하게 될 2010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수한 공연으로 이번 연극제를 빛내 주시는 국·내외 연극인 여러분과 축제를 찾아 주시는 관객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 7회 짝을 맞는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연극의 경계선'을 주제로 기존 연극에 영화와 무용,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져 확장된 연극들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미디, 이슬람 수학자, 슬로닌 왈츠 등 한국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오늘부터 10일 간,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5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채로운 연극 프로그램들이 선사하는 색다른 경험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국제연극제'가 많은 관객들이 연극을 마음껏 즐기고 전문가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세계적인 연극축제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wholeheartedly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0', which will showcase the changing world of global theater here in Busan in this beautiful spring weather.

First of all, I give thanks to the theatrical people, both Koreans and our honored guests from abroad, who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festival with their excellent performances and to the audience who come to enjoy the show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tarted in 2004, and this year we celebrate our 7th year. This year you will be able to watch expanded performances mixed with film, dance and music with this year's theme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For the next ten days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see performances of high quality including Comedy, The Man Who Counted and Slow-nin Waltz. These shows come to us from Korea, Russia, Japan, Italy, France and Taiwan and will be played in many places in Busan.

You can have a special experience with the variety of the theater programs and enjoy the shows in the beautiful May weather.

I hope that you will keep making an effort to help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become a worldwide theater festival. Many audience members should be able to enjoy the festival and experts should be able to share their opinions with one another.

Last but not least, I give thanks to Busan Metropolitan City for their support of the festival and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for bringing culture and art to Korea.

국제문화의 허브도시 부산...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세계의 우수한 연극작품들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인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과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부산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허남식 조직위원장님과 김동규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콘셉트 연극제인 부산국제연극제가 올해는 "연극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관객과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국적과 언어, 장르나 소재를 넘어 어디까지가 연극의 경계인지를 찾아 마음껏 연극의 바다로 빠져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한 만큼 시민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뜻 깊은 문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연극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대표적인 축제로 나날이 발전하여 국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의 향토은행인 저희 부산은행은 우리 부산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국제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축제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행장
이장호

Lee, Jang Ho
CEO of Busan Bank

이장호

Busan, the Hub City of International Cultu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 place where one can see the world's best performances. Come to Busan in May under the warm spring sunshine and a fresh wind that brings happiness.

I give thanks to Huh, Nam Shik, President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Kim, Dong Kyu, Festival Director and the many other people involved in BIPAF who worked immensely hard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this year's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e one and only theme theater festival in Korea, has prepared a lot for this year's audiences with the theme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It will give Busan citizens and guests to Busan a chance to drench themselves into the sea of theater, looking for boundaries beyond nationalities, languages and genres. I feel honored as a Busan citizen who loves the performing arts to be part of this great festival. The festival provides a source of meaningful cultural communication and harmony for the citizens and audience that is well worth the amazing effort it takes to put it together. The rewards are that performing arts can make everyone feel rich beyond their own boundarie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become a festival that represents the Spring of Busan. I wish that it thrives into a world famous festival beyond its Asian boundaries and becomes a festival that represents Korea to the world showing Busan to be a truly international city with a rich full culture.

As Busan's representative bank, Busan Bank will keep doing our best to help Busan become a city of international cul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performing arts and culture.

Once again I appreciate the great efforts by the people who worked hard to make the festival happen. I wish everyone involved, performers and audiences alike happiness in their home in Korea's Family Month of May. Thank you.

인사말 Greeting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 계 배

Park, Gye Bae
Director of the
National Theater
Association of Korea

2010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를 축하드립니다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새로운 계절,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찾아왔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의 면면엔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넘쳐납니다.

좋은 축제란 단지 훌륭한 작품을 초대한다고 해서, 혹은 오랜 역사가 쌓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 7년간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애정이 그 값진 결실을 맺어, 이제는 부산국제연극제도 명실 공히 우리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국제예술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해 새로운 컨셉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이번 컨셉은 '연극의 경계선'입니다. 시간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간의 원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부산국제연극제가 찾아가고자 하는 연극제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그렇게 연극을 향한 초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봄, 푸른 바다에 마음을 열고 잠시나마 부산 시내 10여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연극제에 함께 하는 것도 지친 일상에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술은 한 사회의 지향점을 일깨워주는 가치 척도입니다.

예술가들만의 작품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바탕 축제로서 이 시대 공연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2010 부산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The 7th International Busan Performing Arts Festival is here with the spirit of the Spring. It is as passionate as ever.

A successful festival does not depend only on inviting great performances or having a long history. A successful festival needs the attention of many people with strong aims and passion. Today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rts festival of great esteem in the Korean performing arts field because of the love of Busan citizens,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who have worked hard to put it together over the last 7 year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reets the audience with a new theme every year, and this year's theme is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The theme crosses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to seek the true nature of the theater, which makes us communicate openly with each other, and to be one step closer to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This fact helps the festival achieve such a high standard.

The 7th International Busan Performing Arts Festival goes back to its beginning with this tradition. The arts festival gives audiences great solace from the rigors of daily life to attend any of the festival's 10 performance venues. In Busan it can open your mind to enjoy the fresh spring weather and the beautiful sea.

Arts are the reflection and personification of society's values. Many shows at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find the true value of this generation's performing arts by creating a festival with open communication for the citizens as well as the work of the artist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opening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0.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0
인사말
Greeting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오월의 첫날,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2004년 부산국제연극제가 첫 막이 오른 뒤 올해까지 부산국제연극제는 매해 큰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올해는 '연극의 경계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최근의 예술 흐름은 장르간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또 다른 예술을 탄생시키는 것이 유행인 듯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극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작품들이 기존의 연극적 형식을 탈피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해체를 통한 신체극부터 음악극까지 굳이 그 장르적 이름을 붙이기가 모호한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연극제의 컨셉인 '연극의 경계선' 또한 최근의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디까지가 연극이고 어디까지가 연극이 아니냐는 양분법을 떠나 그 경계선 위에서 유쾌한 줄다림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연극 스스로에 내외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관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3, 4월의 부산연극제, 5월의 부산국제연극제를 거쳐 6월의 전국연극제까지 부산에서 수 많은 연극축제가 개최됩니다. 2010년 올해를 기점으로 부산연극이 다시 한번 도약하여 연극과 시민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부산국제연극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국제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지회장

김동석

Kim, Dong Suk
The National Theater
Association of Korea.
Head of Busan Branch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on the 1st day of May with the beautiful sunny weathe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tarted in 2004, and it has strived forward towards greater excellence every year. This year's festival theme is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It seems that the current art trend is to create another art form by crossing over genres. The theater is not an exception, and many works are produced that break from traditional theatrical forms. Many performances today are being made through a breakdown of traditional theater methods ranging from physical performance to musicals.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se new genres and yet great art is still being created.

The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er' shows this trend very well. Your imagination will be pushed by these boundaries without thinking about them. Many performances that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theater itself are here, waiting for the audience to enjoy.

Numerous theater festivals are held in Busan every year's including the Busan Theater Festival in March and April,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n May and the Korea Theater Festival in June. It is my sincere wish that theater in Busan becomes closer and more attainable for citizens starting with this years theater festivals.

I wish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o be a great success and that it reaches many citizens and brings art and imagination to the audienc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축사 Congratulations



아비뇽 오프 위원장
그렉제르망

Greg Germain
President of the festival
OFF d'Avignon

프랑스 아비뇽 오프 위원장으로써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에 참석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AF&C(아비뇽 오프 페스티벌과 배우협회) 회원들은 다른 축제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강력한 협력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번에 특별히 방한 기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부산국제연극제와의 협력체제를 돈독히 하려합니다.

이번 저의 부산국제연극제 방문은 한국 예술공연의 프랑스 진출 방법 모색과 프랑스 공연의 한국 진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부산국제연극제의 위원장이신 김동규 위원장님과 이 사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있습니다.

또한 친히 아비뇽까지 저를 방문해 주신 부위원장 허은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국제연극제를 방문 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부산국제연극제와 아비뇽 오프의 강력한 협조 체제를 기대합니다.

It is with a great pleasure as President of the festival OFF d'Avignon, that I plan to be at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F&C and myself are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ies and exchange experiences, particularly with a well known festival as the BIPAF in Korea.

In visiting you, my goals are to see in which way we can promote Korean dance and plays in France during the OFF and of course French plays in your country.

I am very happy and honoured to have a chance to discuss with M. Kim, founder of the dram and film school in Busan and to day Director of the BIPAF.

It is also with a great pleasure that I'll see again Professor Huh, whom I met in Avignon last year.

Let me say again how I look forward to be in Busan, and sincerely expect that next year, The OFF and The BIPAF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축사 Congratulations

올 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연극제(BIPAF)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한국 예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산국제연극제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작품들 중 대표적인 공연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부산국제연극제는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며 나눔, 향연, 예술가들의 만남이라는 정신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선별한 결과 수많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해 열리는 프랑스 공연들은 특별히 화려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나쎘르 마르탱 구쎘의 <COMEDY>가 소개되는데 이 공연은 나쎘르 마르탱 구쎘이라는 안무가를 프랑스 안무계의 떠오르는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한 작품으로서,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둔 후 2009년 국제현대무용제(MODAFE)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소개되어 한국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의 관객들이 유쾌하면서도 심오한 이 작품은 물론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Shadow Orchestra (그림자 오케스트라)>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야심찬 공연들이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부산국제연극제의 김동규 집행위원장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Je voudrais adresser mes chaleureuses félicitations au «Festival international des Arts du spectacle de Busan» (BIPAF) qui inaugure sa septième édition cette année.

L'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se réjouit d'être associée pour la deuxième année consécutive à ce festival qui a su se faire une place à part dans le paysage artistique en Corée.

Proposant des spectacles représentatifs des créations internationales les plus prometteuses, ce festival, grâce à une programmation ouverte à toutes les disciplines et un esprit qui privilégie le partage, le caractère festif et les rencontres entre artistes, a su obtenir les suffrages du public le plus large.

La programmation française de cette année, et je m'en réjouis, est particulièrement faste, avec la venue de la pièce «Comedy» du chorégraphe Nasser Martin Gousset. Cette création, qui a contribué à placer le chorégraphe parmi les valeurs montantes de la scène chorégraphique française, a conquis le public des scènes françaises avant de séduire celui de Séoul où il a été présenté en ouverture du festival Modafe («Festival de dance contemporaine coréenne») l'année dernière.

Ainsi nous sommes heureux que le public du BIPAF puisse découvrir un spectacle à la fois réjouissant et sophistiqué ainsi que le spectacle «Shadow Orchestra» qui sera présenté pour la première fois en Corée.

Je tiens à remercier tout particulièrement M. KIM Dong-Kyu, Directeur du festival, ainsi que son équipe, dont l'enthousiasme et la passion permettent la venue en Corée de productions aussi ambitieuses.



주한프랑스대사
엘리자벳 로랭

Elisabeth Laurin
Ambassadrice de
France en Corée



축사 Congratulations



폴란드 바르샤바 아테네움 예술감독
폴란드 첫 독립정부 전문화부 장관

이사벨라 쯔빈스카

IZABELLA CYWIŃSKA

Artistic manager of Teatr Ateneum, Warsaw, Poland
Former Minister of Culture in the first independent Poland's government.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이 축사를 제가 일하는 폴란드 바르샤바 아테네움 극장에서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 2주를 남겨두고 쓰고 있습니다.

초청에 깊은 감사드리며 부산과 축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쁘게도 한국 연극계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대표하시는 부산국제연극제 김동규위원장과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신디 박을 지난 여름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아테네움 극장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전 그날 만난 자리에서 김동규 위원장을 나의 새 친구라고 명명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목적의식을 가진 열린 사고의 경계선 없는 연극,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일하고 싸우는 예술적 동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로 소통되는 연극이라는 장르는 그 자체가 양질의 언어이자 전문적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류의 국제적 책임이자 심오한 예술, 그리고 이해와 교육을 수반합니다. 폴란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문화부 장관으로써 제가 처음 착수 한 일이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장은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저에게 항상 행운을 가져다 주는 토끼 도자기 인형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린 행운의 토끼가 다시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제가 항상 꿈 껴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할 것이며 항상 이야기해 왔던 부산국제연극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김동규위원장과 저는 이미 세계교류축제연합회를 통해 동지로서 활동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이 협력관계의 전초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장을 만난 순간부터 친구가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 이벤트, 열린 사고를 지양하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좋은 예술적 체험을 하고가시길 기원합니다. Powodzenia! (폴란드어로 행운을 기원한다는 뜻)

Dear Sirs, I write this short note in my office in Teatr Ateneum, Warsaw, Poland, two weeks before the opening day of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 am very grateful for inviting me to Busan and for the Festival, which prestige is to me well known.

I was happy to meet Mr Kim Dong Kyu, The Festival Director and a great, well known personality of the Korean theater as well as Mrs Cindy Soang Park, Chief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last summer in Warsaw, in the same office of Teatr Ateneum, where now I am writing this note.

I called that day Mr Kim my new friend as I believed from the very first moment we are working and fighting for the same goal - the future of open-minded theater without borders - mental or geographical.

For the theater what speaks just one language - its own language of high-level, professional, deeply artistic and human global work for a better future, understanding and education.

The goals I was working for as the first Minister of Culture in the independent and free Poland.

Mr Kim gave me a beautiful Korean casket. I gave Mr Kim my lucky porcelain rabbit. The rabbit gave me the luck once again - just after few days I will be happy to visit the country I've always dreamt to visit, Korea. I will be happy to participate the Festival I've heard so much about.

We, Mr Kim and I, have very concrete work to do, engaging in the new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This visit in Korea is just a begging of our cooperation.

What made Mr Kim to be my friend since the very first moment is that we both over and over find the energy to begin new and new activities, events and spaces for the modern and open-minded society.

I would like to wish to all the participants and to audience only good, artistic experiences during the 7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Powodzenia! - what is in Polish and means: Good luck!

PERFORMANCE

BIPAF MAIN



코메디 Comedy

Opening Performance

개막작

BIPAF MAIN



프랑스 / 90분 / 전체관람가
5.1(토) 18:00 ~ 5.2(일) 1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France / 90min / G-rated
May 1st(Sat) 18:00 ~ May 2nd(Sun) 19: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슬랩스틱 코메디, 그림자 공연, 라이브로 연주되는 재즈 선율 속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남녀 배우들의 황홀한 움직임

슬랩스틱 코메디, 그림자 공연, 라이브로 연주되는 재즈 선율 속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남녀 배우들의 황홀한 움직임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진다. 무대를 꽉 채울 듯이 올라온 19명 무용수들의 연기는 마치 뮤지컬을 연상시킨다. 춤을 추듯 움직이는 무대의 조명도 기존의 연극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다. 실루엣너머로 보이는 배우들의 연기는 억지스러운 듯, 실소를 자아내고 때론 섹시하다. 특별 제작된 세트, 화려한 의상과 눈부신 배우들의 열연은 관객들을 웃음과 감동으로 채워줄 것이다.

★관객과의 대화 5.2(일) 19:00 (공연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안무 : 나세르 마르탱 구셰 / **출연** : 나세르 마르탱 구셰, 필립 로랑쑈, 조세페 몰리노, 알렉상드르 다 실바 세드릭 르켈르, 스맹 부세타, 카푸신느 구스트, 이은영, 카롤 고메스, 뱅시안느 공브로비츠, 산드라 사뱅 조나단 젤니크, 피에르 크리스토프, 로랑 바따이, 나썸 브라يمي, 깡탱 데쿠르티스, 올리비에 망딜리 루도빅 부오, 쌍지즈 아르틀랍, 장 밥티스트 보송

코메디
Comedy

Slap stick comedy and shadow performance. Jazz music will be playing live with fascinating act by beautiful performers on the stage.

This year's opening show is a rip roaring good time mixing the jazz and class of the 1920's and 30's Gatsby era with the style and free thinking of the 1960's. Comedy is an entertaining show that moves quickly, a mix of drama and musical theater. With a live score performed on stage featuring the music of legendary jazz musician Dave Brubeck it is a must see. Set in the 1960's Comedy is about a French party held in the wealthy suburbs of Paris. On the eve of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he elite of Paris are gathered together for the auction of the famous Gatsby Diamond. As the party heats up, the election comes to a heated finish and the diamond disappears.

This is the latest creation by master choreographer Nasser Martin Gousset who is known for his simple sets and allowing the audience to see inside the world of each project he creates. The show mixes burlesque situations, jazz and dance. With beautiful performers and a fast paced drama it is a highly entertaining show.

★Q&A with performers May 2nd 19:00,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Choreography : Nasser Martin-Gousset / **Performer** : Nasser Martin Gousset, Philippe Lourenço, Giuseppe Molino, Alexandre Da Silva, Cedric Lequileuc, Smain Boucetta, Capucine Goust, Eun young Lee, Carole Gomes, Vinciane Gombrowicz, Sandra Savin, Jonathan Zelnik, Pierre Christophe, Laurent Bataile, Nacim Brahimi, Quentin Descourtis, Olivier Mendili, Ludovic Bouaud, Cengiz Hartlap, Jean-Baptiste Bosson

이슬람 수학자

The Man Who Counted

Closing
Performance

폐막작

BIPAF MAIN



한국 / 70분 / 전체관람가
5.9(일) 19:00 ~ 5.10(월) 20: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Korea / 70min / G-rated
May 9th(Sun) 19:00 ~ May 10th(Mon) 20: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영상과 연극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영화 같은 그림자극.

대서사시적 규모의 스토리와 난해한 수학 공식 및 도형에 대한 이미지들을 명쾌하고 재치 있게 풀어낸다. 그리고 상상력 넘치는 영상의 힘과 그림자극은 연극과 영화의 요소를 넘나들며 관객들을 즐거운 수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베레미즈가 여행 중에 만난 아랍인 형제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35마리의 낙타를 공평하게 나누어 준 일, 빵과 금화 여덟 닢에 대한 베레미즈의 단순하지만 정확하고도 완벽한 나눗셈, 보석상과 여관 주인의 숙박비 논쟁에서 발취되는 놀라운 계산법, 대규모의 낙타수 세기, 솔로몬 왕이 약혼녀 시바의 여왕 벨키스에게 선물한 529개의 진주 이야기, 13과 16사이의 우정, 4의4, 21개의 포도주 통에 관한 논리, 새장의 새를 통한 완전수의 원리 등 베레미즈의 천재적이고 명쾌한 모험 이야기들은 보는 내내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관객과의 대화 5.9(일) 19:00 (공연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출 : 김태용 / 출연 : 최진석, 손상규, 박지홍
스텝 : 이은아, 신지현, , 나카지마 유스케, 김초희, 박상진

이슬람 수학자
The Man
Who Counted

A movie-like shadow performance with a great combination of motion pictures and plays

BIPAF's closing show The Man who Counted, is an adventure tale of love and success set in 13th Century Arabia. It is a combination of shadow play and motion picture that appears to the audience like a movie.

A visual delight, the play is imaginative and intriguing. Perfect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he performance conjures up a past life when a man could set out on an adventure to seek success in life. It is the tale of Beremeze, a gifted mathematician living in Baghdad during the 13th century who goes on a touching adventure to achieve wealth, fame and the love of the beautiful Telas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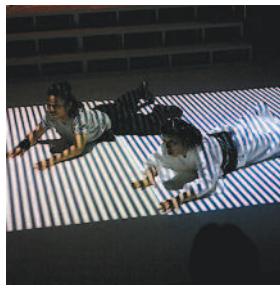
★Q&A with performers May 9th 19:00,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Director : Kim Tae Yong / Performer : Choi Jin Seok, Sohn Sang Gyu, Park Ji Hong / Staff : Lee Eun Ah, Sin Ji Hyun, Nakajima Yusuke, Kim Cho Hee, Park Sang Jin

슬로닌 왈츠

Slow Nin Waltz

BIPAF MAIN



일본 / 80분 / 전체관람가
5.7(금) 20:00 ~ 5.8(토) 16:00 / 19:00
경성대학교 예노 소극장

Japan / 80min / G-rated
May 7th(Fri) 20:00 ~ May 8th(Sat) 16:00 / 19:00
Yeno Hall, KyungSung Univ.

스토리를 연주하는 음악, 관직을 얻지 못한 사무라이의 애환을 표현하는 마임

이야기를 연주하는 음악, 사무라이 마음의 여정을 표현하는 마임, 관직을 얻지 못한 사무라이의 애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던 시대를 무대로 옮겼다. 이상한 나라 일본의 이야기. 생동감 넘치는 마임&엔터테인먼트!
어설픈 사무라이 한 명이 결투에서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죽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검을 내다팔고 무언가에 쫓기듯 에도(えど)를 떠난다. 비를 피하고 있는 악단, 말을 걸어오는 후지산, 소한테 끌려온 선광사, 아무도 없는 마을, 갑자기 나타난 좀비. 꿈인가 환상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한 사무라이의 여정.

★관객과의 대화 5.8(토) 19:00 (공연후) 예노소극장

연출 : 워리 키노시타 / **출연** : 이이무로 나오키, 야스모토 미호코, 타나카 케이수케, 나이트 요스케, 토마루 토모하루, 우에다 마사히로 / **무대 관리자** : 타케요시 코지 / **비주얼 크리에이터** : 요시미츠 키요타카 / **음향** : 하야시 유스케 / **조명** : 오이가미 마유미 / **매니저** : 이세 카오리 / **스크립트 작업 매니저** : 이이무로 마사코

Music that plays stories, Mime that expresses the journey of a Samurai's heart, Sorrows of the Samurai who did not get a government post

Coming from Osaka Japan, Slow Nin Waltz is produced by the Hephall group of Osaka. It is a mime troupe using light and sound to create a story both strange and interesting. Slow Nin Waltz is the tale of a clumsy Samurai in Edo era Japan who dreams of his own death in a duel. Upon waking he decides to sell his sword and run from the inn where he lives. The play is the story of his escape from death and his strange journey as he is chased through Edo Japan told through mime, music and light.

It is an entertaining tale, expect to see many strange and unreal events along his journey including a talking mountain, an intelligent cow and even a zombie. In the end the samurai comes to the realization that no one can escape death and must accept his fate and return to his life as samurai. A mix of modern and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it is an entertaining and at times beautiful tale told artfully.

★Q&A with performers May 8th 19:00 Yeno Hall, KyungSung Univ.

Director : Worry kinoshita / **Actor** : IIMURO Naoki, YASUMOTO Mihoko, TANAKA Keisuke, NAITO Yosuke, TOMARU Tomoharu, UEDA Masahiro / **Stage Manager** : TAKEYOSHI Koji / **Visual Creator** : YOSHIMITSU Kiyotaka / **Sound** : HAYASHI Yusuke / **Light** : OIGAMI Mayumi / **Manager** : ISE Kaori / **Script Manager** : KAWATE Masako (IIMURO Masako)*

슬로닌 왈츠
Slow Nin
Waltz

세 번째 전환

The Third Turn

BIPAF MAIN



한국 / 90분 / 전체관람가
5.7(금) 20:00 ~ 5.8(토) 19: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Korea / 90min / G-rated
May 7th[Fri] 20:00 ~ May 8th[Sat] 19:00
Small Hall, Busan Cultural Center

세 번째 전환은 우리가 머무는 곳, 기적이 머무는 곳, 춤이 머무는 곳... 즉, 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랄까?

'자유' 라는 한 단어로 이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배우들의 몸짓은 정해진 안무가 아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에 기대어 폭발하는 에너지를 몸으로 표현한다.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와 울부짖음은 어느새 한 가닥 희망을 토해내고 관객들은 이 꾸밈없고 처절한 호소력 앞에 잃었던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관객과의 대화 5.8(토) 19:00 (공연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연출 : 김윤규 / 안무 : 김형희 / 출연 : 이선영, 최진한, 구선진, 이재은, 서진욱, 이다일, 신민, 김윤규

세 번째 전환 The Third Turn

The Third Turn is a place where we stay, where miracles are and where dance remains:
a journey for the body

A show for those that truly appreciate performance art The Third Turn is an intense performance. Incorporating modern dance and theater, the show presents human chaos and both mental and physical anguish.

With great symbolism the show is widely open for interpretation. A non-verbal performance the audience can create it's own story from the scenes on stage. Done almost entirely with dark stage lighting it has an edge of the sinister or evil, many of the dance movements are violent in their urgency and frenzy. Towards the end there is a very noticeable climax and the show moves from dark to light, from chaos and disorder in the dark to calm and order in the light.

★Q&A with performers **May 8th 19:00,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Director : Kim Yoon Gyu / **Choreography :** Kim Hyung Hee / **Actor :** Lee Sun young, Choi Jin Han, Goo Sun Jin, Lee Jae Eun, Seo Jin Wook, Lee Da Il, Sin Min, Kim Youn Kyu

잔혹함의 미학 Bertrand's Toys

BIPAF MAIN



러시아 / 60분 / 전체관람가
5.8(토) 16:00 / 19:00 ~ 5.9(일) 19: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Russia / 60min / G-rated
May 8th(Sat) 16:00 / 19:00 ~ May 9th(Sun) 19:00
Concert Hall, KyungSung Univ.

기괴한 분장, 고막을 울리는 트랜스 음악,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오가는 잔혹함의 미학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잔혹극의 대명사 Black sky White 극단이 드디어 부산을 방문한다. 레이저 쇼와 화려한 조명으로 무장한 스펙타클한 무대를 시작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으며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분장을 한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한다. 줄거리 없이 악하고 괴상한 인간 만화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연출을 바탕으로 무자비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선사한다.

PREVIEW

전체적으로 신랄하고, 공포스러우며, 흥분되어 관객들은 숨이 가빠지고 일어나 환호하게 된다. - THE GUARDIAN
줄거리 없이 악하고 괴상한 인간 만화는 무자비하고 후회하지 못할 시간을 선사한다.

이것은 오싹하고 소름끼치는 매력이 있다. - THE TIMES

★관객과의 대화 5.8(토) 16:00 (공연후) 경성대 콘서트 홀

연출 : 드미트리 아류핀 / 의상 : 바소바 엘레나 / 출연 : 올레니코브 안드레이, 솔탄 마첼라

잔혹함의
미학
Bertrand's
Toys

Bizarre makeup, strong trans music, beauty of cruelty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In this Russian production life size toys come alive to an electronic industrial symphony and a stunning light show that grabs audiences. It is the story of marionettes and dolls come to life and guided by a mysterious often cruel hand. Nightmare like, yet captivating it is an entertaining show that will leave audiences thinking about it long after they have gone home.

Not suitable for young children Bertrand's Toys is dark, at times like a nightmare. In the company's own words "If this is a dream then you will never wake up. If this is reality then where is the door leading out of this world?" A truer description could not be found, it is another world, a world of the macabre with giant marionettes and dolls. A world you want to escape from yet don't want to stop wat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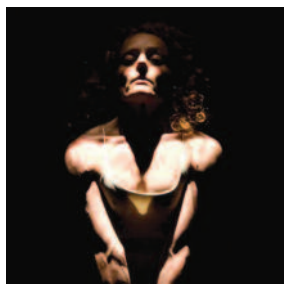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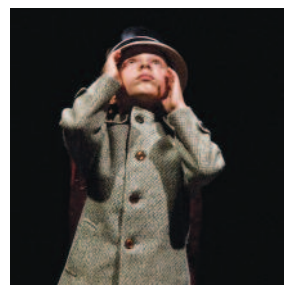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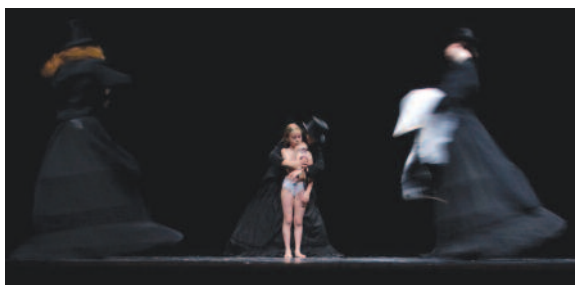
Created by the mime company Black sky White from Russia, Bertrand's Toys is impossible to put into one genre. While borrowing from traditional mime techniques it is much more. Despite inspiration from Russian horror films, ritual and Petrushka (a traditional Russian marionette character), the show is modern and provocative.

★Q&A with performers May 8th 16:00, Concert Hall of KyungSung University

Director : Aryupin Dimitry / Actor : Oleynikov Andrey, Soltan Marchela, Costume Basova Elena

마네킹의 눈물 Treatise of Mannequins

BIPAF MAIN



이태리 / 55분 / 15세 이상 관람가
5.8(토) 19:00 ~ 5.9(일) 19: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Italy / 55min / PG-14
May 8th(Sat) 19:00 ~ May 9th(Sun) 19:00
Small Hall, Busan Citizen's Hall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연속, 음산하지만 자꾸 슬퍼지는 것은 무엇 때문 일까?

고급스러운 상점의 진열장에 전시된 여자 마네킹이 있다. 그 마네킹들은 유년시절로 가는 열쇠를 찾기 위해, 몽상적인 기억을 따라 떠난다. 이 작품은 몽상적인 꿈의 기억을 따라 가다 결국 부딪치게 되는 현실속의 사건이다. 꿈을 꾸고 있으나 현실 속에선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끔찍한 괴물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알람시계 소리가 울리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관객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 한 구석에 남겨진다. 기분이 우울할 때, 그보다 더한 우울함으로 위로를 받고 싶다면....

★관객과의 대화 5.9(일) 19:00 (공연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연출 : 알레산드로 세라 / 기술 : 엔리코 말란드라

출연 : 발렌티나 살레르노, 알레산드라 크리스띠아니, 치아라 카시아니, 실비아 말란드라

마네킹의 눈물
Treatise of
Mannequins

Unfathomable actions can not be stopped. It is dreary but why things are getting so sad?

Hailing from Italy, Treatise of Mannequins is a visual delight. It takes the audience on a dream like trip back into childhood. Costumes come in only three colors, black, white and a dark, almost blood red. With a combination of modern and classical dance, the show tells a tale that speaks to all.

It is the story of a return to childhood. A journey where everything children experience comes to life, terror and joy, dreams and awakening. The audience must confront their own child self as the dancers on the stage put different garments on the child whose tale i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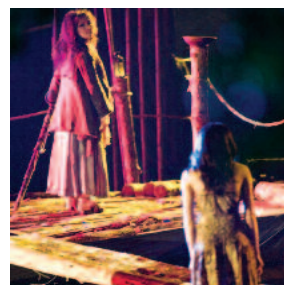
With a beautiful score and talented dancers Treatise of Mannequins is a non-verbal play that is perfect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It follows the journey of a small child on her path through childhood. Occurring entirely at night, the play feels like it is basked in moonlight and will awaken the audiences' imagination as they create their own story to follow the tale the dancers weave.

★Q&A with performers May 9th 19:00 Small Hall of Busan Citizen's Hall

Director : ALESSANDRO SERRA / Actor : VALENTINA SALERNO, ALESSANDRA CRISTIANI, CHIARA CASCIANI, SILVIA MALANDRA

오이디푸스 Oedipus-Ruin

BIPAF MAIN



한국 / 70분 / 전체관람가
5.3(월) 20:00 ~ 5.4(화) 20:00
경성대학교 야외공연

Korea / 70min / G-rated
May 3rd(Mon) 20:00 ~ May 4th(Tue) 20:00
Outdoor performance in KyungSung Univ.

현대화된 대학이라는 공간과 그 속에 자리 잡은 거친 빈터라는 이중성속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절묘한 공연

극장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의 연극을 실험하면서 특정 공간 연극 혹은 환경연극 등의 야외극을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는 '열혈예술청년단' 의 이번 공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일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 세대의 잘못을 후 세대가 책임진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의 뜻을 반대하며 척박한 땅을 일구어 생존하는 인간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거친 산을 배경으로 줄거리를 수정하였고 그에 적절한 환경인 깎아낸 산이 보이는 빈터를 공간으로 삼는다. 현대화된 대학이라는 공간과 거친 빈터라는 이중성을 가진 공간은 거칠고 척박한 빈터라는 생활 공간과 왕족이며 하이클래스라는 계층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그 절묘한 조화가 이 공연의 핵심적인 컨셉트가 될 것이다.

★관객과의 대화 5.4(화) 20:00 (공연후) 경성대학교 야외공연

연출 : 윤서비 / 조연출 : 한성수 / 음악감독 : 이반석 / 스템 : 박성일
출연 : 최우성, 안현빈, 용석주, 홍지원, 백성은, 석희연

오이디푸스
Oedipus -Ruin

Finding balance in duplicity: a rough empty space in the modernized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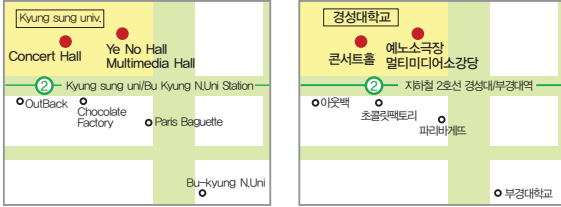
An interesting play with good actors and set design unfortunately this show is aimed at Korean audiences. With a complex plot and storyline entirely in Korean it will be difficult for most foreigners to fully understand.

The show however has an elaborate set, including a river, bridges smoke and mist. The music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how and is a mix of modern music with some traditional Korean sounds. Taking place in a rural Korean village the show appears to be the ageless story of man and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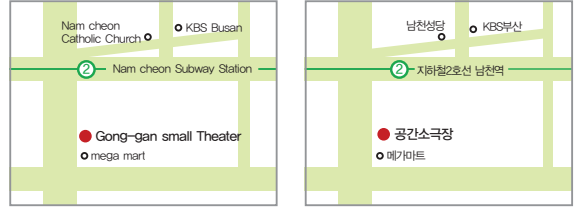
★Q&A with performers May 4th 20:00 Outdoor Performance in KyungSung Univ.

Director : Yun Seo Bi, Han Sung Soo, Lee Ban Seok / Staff : Park Sung Il / Performer : Choi Woo Sung, Ahn Hyun Bin, Yong Seok Joo, Hong Ji Won, Back Sung Eun, Seok Hee Yeo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예노소극장 / 멀티미디어 소강당 / <http://ks.ac.kr/>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Tel. (051)622-4561~7
 Kyung-sung Univ, Concert Hall / Ye No Hall / Multimedia Hall
 Kyung-sung Univ, 110-1 Dae-yeon Sam Dong NamGu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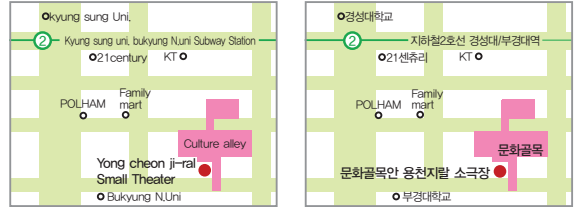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http://cafe.daum.net/say0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Gong-gan small Theater
 Nam-cheon Dong, Su-yeong Gu,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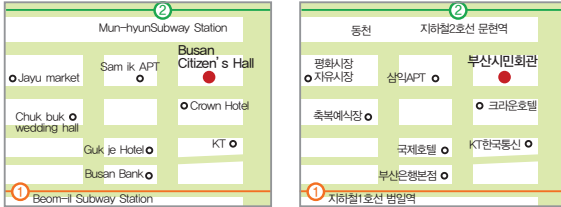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 <http://bsculture.busan.kr/>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0-4번지 Tel.(051)625-8130
 Busan Cultural Center
 840-4 Dae-yeon 4Dong, Nam Gu, Busan



문화골목 용천지랄소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2-4 문화골목 Tel. (051)625-0767
 Culture Alley Yong Cheon jiral Small Theater
 52-4 Daeyeon3dong, Nam Gu,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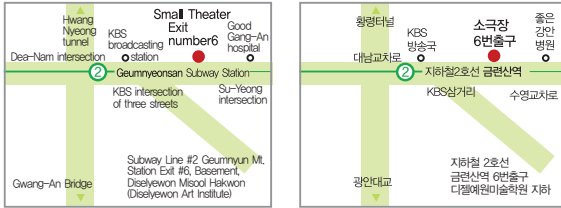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 <http://www.citizenhall.busan.kr/>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1-31번지 / Tel. (051)630-5200
 Busan Citizen Hall
 831-31 Beom-il 2dong, Dong Gu, Bu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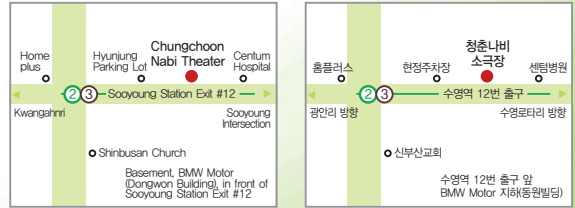
초콜릿팩토리 / <http://cafe.daum.net/chocolate-factory>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Tel. (051)621-4005
 Chocolate Factory
 Dae-yeon Dong, Nam Gu, Busan



소극장 6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0번지 금련산역 6번출구 Tel.(051)625-2117
 Yukbeonchoolgu Theater
 40 Geumnyun Mt. Station Exit #6, Namcheon-dong, Sooyoung-gu, Busan



청춘나비소극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1동 1078-16번지 동원빌딩 B1 Tel. 070-8241-2560
 Chungchoon Nabi Theater
 1078-16, First basement, Dongwon Building, Kwangahn il-dong, Sooyoung-gu, Busan



P E R F O R M A N C E

BIPAF OPEN

우수극 | 가족극 | 소극장 스테이지
Special | Family | Small Theater Stage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척

Beautiful Murderer! Woyzeck

BIPAF OPEN
Special



한국 / 90분 / 15세 이상
5.2(일) 16:00 / 19:00 ~ 5.3(월) 20: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Korea / 90min / PG-14
May 2nd(Sun) 16:00 / 19:00 ~ May 3rd(Mon) 20:00
Small Hall, Busan Citizen's Hall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 통합된 공간 안에서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시간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밑바닥 민중의 현실, 소통이 단절된 인간관계의 부조리, 인간이 지닌 동물적 욕망과 도덕적 관습 사이의 갈등, 문명의 진보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절망, 더 나아가서는 인간 존재가치에 대한 비판적 담론 등, 인간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에 진지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척' 은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벌이는 한바탕 '보이척 놀이' 가 될 것이다. 관객들은 배우들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배우들이 연기하는 인물들의 정서를 여과 없이 흡수해 일체화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관객과의 대화 5.3(월) 20:00 (공연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연출 : 김승철 / 출연 : 임진순, 강선희, 박시내, 이용주, 이형주, 박상석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척
Beautiful Murderer!
Woyzeck

No boundaries between the stage and seats. Communication between the actors and audience in a unified space

Woyzeck is the story of man's ageless working class struggle and desperation for money. It is about the weakness of the human condition which results in folly and jealousy. The play has been created and recreated countless times in different styles and languages around the world since it was first written.

Based on the true story of Johann Christian Woyzeck a poor German man, it is a working class tragedy. In real life Woyzeck was publicly beheaded for murdering the woman he was living with in a fit of jealousy. In the play Woyzeck is forced to work for the army in his desperation for financial income. His work begins with menial labor but soon the army is performing medical experiments on him. His mental state decreases and he becomes paranoid and jealous. The play was only partially completed by Georg Buchner in 1837 at the time of his death, therefore it is widely open to adaptation perhaps one of the reasons for its great popularity. Among famous productions of it have been a Werner Herzog movie and an American theater musical with a soundtrack written by Tom Waits. The Tom Waits album Blood Money was made for Woyzeck.

★Q&A with performers May 3rd Small Hall of Busan Citizen's Hall

Director : Kim Seung Cheol / Actor : Lim Jin Soon, Kang Sun Hee, Park Shi Nae, Lee Young Joo, Lee Hyung Joo, Park Sang Seok

추격자 Chaser

BIPAF OPEN
Special



한국 / 80분 / 전체관람가
5.2(일) 16:00 / 19:00 ~ 5.3(월) 20:00
경성대학교 예노 소극장

Korea / 80min / G-rated
May 2nd(Sun) 16:00 / 19:00 ~ May 3rd(Mon) 20:00
Yeno Hall, KyungSung Univ.

타악, 마임, 저글링, 마술의 강력한 조합!! 비언어극의 '진화' 는 끝나지 않았다!!

어떠한 자동장치나 스태프들의 도움 없이 오직 배우 세 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극 '추격자' 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마임적인 환영을 응용해 현실화 시켰으며, 타악 퍼포먼스, 마술, 저글링, 인형극 등의 각 장르를 완벽하게 조합하여 하나의 진화된 넘버벌 극으로 만들어 냈다. 여기에, 빠른 템포의 극 진행은 실 새 없는 웃음을 주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며 극은 완성된다.

PREVIEW

거짓말 2프로만 딱 보태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난타'만큼 재미있다.

'난타'만큼? 꼭 한국을 대표하는 넘버벌 공연이 되길 빈다.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공연이 되길, 관객의 한 사람으로 기원해본다. - <2009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관객과의 대화 5.3(월) 20:00 (공연후) 경성대 예노 소극장

스텝 : 박성일, 이지현, 이은경, 김효민 / 출연 : 변성중, 김 준, 송정배, 양지욱



Powerful combination of percussion, mime, juggling and magic!! The 'evolution' of nonverbal performances has not come to an end yet!!

Break dancing, mime, magic, music, comedy and action, this show has it all. With a modern edgy feel yet still family appropriate Chaser delivers a fast paced variety of performance talent.

If you want to laugh and be entertained come see Chaser. The opening begins with a Pink Panther meets Peter Gunn chase sequence and from there it moves to drumming, dancing, comedy and magic. Incorporating a hat sequence borrowed from Charlie Chaplin and a juggling show done to modern music these young trios of men really get the audience excited. A talented mix, the show is great for all audiences. Children will appreciate the comedy and magic and adults will appreciate the talented performers.

★Q&A with performers May 3rd 20:00 Yeno Theater of KyungSung University

Staff : Park Seong il, Lee Ji hyun, Lee Eun kyung, Kim Hyo mi / Actor : Byun Seong joong, Kim Jun, Song Jeong bae, Yang Ji wook

꿈꾸는 화석 Dreaming Fossil

부산연극제 대상작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BIPAF OPEN
Special



한국 / 100분 / 전체관람가
5.5(수) 19:00 ~ 5.6(목) 20: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Korea / 100min / G-rated
May 5th(Wed) 19:00 ~ May 6th(Thu) 20: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어쩔 수 없는 선택? 살기위한 변명? 일제강점기의 딜레마

수한과 진한, 기영의 대화를 통해 일제 치하의 조선의 모습과 수한이 징집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한다. 수한은 일본 군무원으로 징집에 참여한다. 일본의 패전으로 전범재판이 열리고 모두 사형 판결을 받는다. 그 와중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 니시하라 대령이 석방된다.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포로 수용소. 마지막으로 남은 김수한은 죄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는데...

이 작품은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식민치하의 삶을 '아픔과 설움'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일제 식민지를 이어오게 한 줄기가 아니었을까?

★관객과의 대화 5.6(목) 20:00 (공연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가 : 교연옥 / 연출 : 강성우 / 출연 : 허정현, 권병익, 신동훈, 배진만, 강봉금, 황유나, 조성배, 우영태

꿈꾸는 화석
Dreaming
Fossil

Dreaming Fossil is set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era. This is the time in Korea's history when Japan occupied the peninsula and the effects of their rule and their defeat leading to Korea's freedom is shown through the lives of three Koreans caught in the dangerous political times of the nation.

Similar to the tale of Nazi sympathizers in France, Belgium and Holland during World War II and their punishment when allied forces freed those countries from the Germans, this is the universal tale of a people living under foreign rulers and the choices people make to survive.

★Q&A with performers May 6th 20: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Writer : Goh Yeon Ok / Director : Kang Sung Woo / Performer : Huh Jung Hyun, Kwon Byung Ik, Shin Dong Hoon, Bae Jin Man, Kang Bong Keum, Hwang Yoo Nah, Cho Sung Bae, Woo Young Tae

그림자 오케스트라

The Shadow Orchestra

BIPAF OPEN
Family



프랑스 / 70분 / 전체관람가
5.4(화) 20:00 ~ 5.5(수) 16:00 / 19:00
5.9(일) 1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비파프투어)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France / 70min / G-rated
May 4th(Tue) 20:00 ~ May 5th(Wed) 16:00 / 19:00
May 9th(Sun) 15:00 Yeoung-do culture arts Hall(BIPAF TOUR)
Concert Hall, KyungSung Univ.

사비에 몰티메(이 작품의 연출자, 출연자)의 시각적인 놀라움과,
풍성한 창의성으로 여러분들을 잊을 수 없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할 것이다.

사물들이 마법에 걸리고, 그림자들은 그들만의 삶을 가지며, 악기들은 자기 멋대로 날아가고, 그들의 의지에 복종하는 세계가 펼쳐진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마치 마술에 의해 녹아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이 마술 같은 황홀한 세계에 빠져보자.

PREVIEW

완전 황홀한 쇼! - 르 누벨 오페르바퇴르 지

눈물과 웃음 사이에, 사비에 몰티메는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쇼를 나누어준다. - 파리스코프 지

끊임없는 놀라움. 주인공의 드러나는 순수함과, 연기에 관객들은 넋을 잃고, 크나큰 감동을 받는다. - 르 파리앵 지

★관객과의 대화 5.5(수) 19:00 (공연후) 경성대 콘서트 홀

연출 및 출연 : 사비에 몰티메 / 무대기술 : 길로메 로메인 / 조명기술 : 토마스 리쫘티

매니저 : 길레스 마타나

그림자
오케스트라
The Shadow
Orchestra

You will be absorbed in a fantasy world of Xavier Mortimer, director and performer that you will never forget with full of visual surprises and rich inventiveness.

A combination one man band, mime and magician, Xavier Mortimer creates a sophisticated entertaining theater performance. Great for the whole family Xavier Mortimer's talents are comedic and extraordinary.

The stage opens to a silhouetted curtain showing a tuba case. A shadow pulls himself out of the tuba case, dusts himself off, the curtain rises and from there the show begins. A renaissance man of the theater, Mortimer blends music to mime and magic to dance. As the show progresses at a fast pace Mortimer is able to duplicate himself, the man now appears on stage and behind him appear his shadow doubles playing an entire orchestra of music the he keeps time to and interacts with. Hailing from France The Shadow Orchestra received great praise at both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and Festival D'Avignon. If you have any interest in magic and amazement this is a show for you and your children. It is pure magic, dance and music, as a non-verbal show it is great for any audience.

★Q&A with performers May 5th 19:00 Concert Hall of KyungSung University

Actor : Xavier Mortimer / Light : Thomas Rizzotti / Stage Technician : Guillaume Romain / Tour Director : Gilles Mattana

나는 또 다른 너 I Am Another Yourself

BIPAF OPEN
Family



대만 / 70분 / 전체관람가

5.5(수) 16:00 / 19:00 ~

5.6(목) 16:00 / 20:00 ~ 5.7(금) 20:00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Taiwan / 70min / G-rated

May 5th(Wed) 16:00 / 19:00 ~

May 6th(Thu) 16:00 / 20:00 ~ May 7th(Fri) 20:00

Multimedia Hall, KyungSung Univ.

놀랍고 환상적인 인형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움직임,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듯, 성인을 위한 인형 동화극.

에피소드들은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반복적인 등장인물들과 반복성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면서 에피소드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작품은 인간이 독립체로 태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한 다른 인간과의 연결고리, 살면서 겪는 고통과 기쁨이 모든 인간을 때로는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고 때로는 톱니바퀴가 되어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인형은 어느새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꿈과 추억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지금은 조심성, 주저함, 무관심, 모순으로 많이 잃고 닳아 버린 어른들의 상상력을 다시 부추긴다. 인형 조작자들은 놀랍도록 섬세한 움직임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 잡는다.

★관객과의 대화 5.6(목) 16:00 (공연후) 경성대 멀티미디어 소강당

극작가 및 감독 : 차인 쉥 / 의상디자이너 : 안리 로 / 인형디자이너 : 슈밍 초, 차인 쉥
출연 : 미첸 치우, 주이시아 흥, 유 제인 리우, 춘찬 웨이

나는 또 다른 너
I Am Another
Yourself

Sophisticated and delicate movements of astonishing and fascinating puppets. A poetic puppet play aimed at adults.

A great production for both Korean and English audiences I Am Another Yourself is a non-verbal play and carried entirely by the score and the actions of the figures. Directed by Chia-yin Cheng and produced by Puppet & Its Double Theater the Taiwanese puppet collective the show is broken into ten parts which are tied together for the finale. Puppet and Its Double Theater is an award-winning puppet group that delights and amazes audiences with its creativity and imagination. Coming from Taiwan this puppet theater group has won many awards and much praise as it has delighted audiences around the world.

The score is written by composer Young Chen and tells the tale which goes from the playful and whimsical to the dark and oppressive. The puppets are other worldly and truly unique. Each puppet has a personality and appearance which helps to tell the story. All shows are in Kyung Sung Universities Multimedia center guaranteeing everyone a good view of the puppets.

★Q&A with performers May 6th 16:00, Concert Hall of Kyung Sung University

Director : CHENG, CHIA-YIN / Actor : HUNG JUI-HSIA, LIU YU-JANE, CHIU MI-CHEN, HSUEH MEI-HUA / Operator : CHOW LING-CHIH / Light : WANG TIEN-HUNG

애들아 같이 놀자

The Imaginary Life of Everyday Objects

BIPAF OPEN
Family



한국 / 55분 / 전체관람가
5.5(수) 14:00/18:00 ~ 5.6(목) 11:00/14: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Korea / 55min / G-rated
May 5th(Wed) 14:00/18:00 ~ May 6th(Thu) 11:00/14:30
Small Hall, Busan Citizen's Hall

놀이로 만나는 재활용 연극의 진수 ~! 재활용 놀이? 새롭게 만들어 볼까?

〈애들아 같이 놀자〉는 폐품을 이용한 연극으로 각각의 Episode를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놀이 시간을 마련한다.

Episode 1 무한 변신 ~! 신문지 놀이

신문지를 사용하여 보여지는 64가지의 상황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다이나믹하게 보여진다. 또한 신문지를 가지고 기발한 변형 놀이를 선보인다.

Episode 2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지와 폐지로 만든 30센치 정도의 작은 인형들이 등장한다. 쉐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Episode 3 로케트를 만들다

주위의 버려진 폐품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극. 달에 가고 싶은 광대 네명이 그들의 상상력에 도전한다. 버려진 폐품들을 이용해 로케트를 만들어 쏘아 올린다. 시각적 공간이 우주로 변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관객과의 대화 5.5(수) 18:00 (공연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출연 : 이준수, 안휘준, 김현진, 염선화

애들아 같이 놀자
The Imaginary Life
of Everyday Objects

Quintessence of recycle plays through games. Recycle game?
Want to make it new?

A lively act aimed at families and children, The Imaginary Life of Everyday Objects is a fast paced combination of mime, dance and music. Whimsical and comical performers take common objects and turn them into props in everyday circumstances. They use these objects to act out every imaginable act of human life. Imagine robots, superman and space shuttles made from newspapers and acted out with human sound effects, it's a fantastic family show. Imaginative and entertaining it will be loved by young children. Almost completely non-verbal the show relies on the strong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ers to act out every skit. With human made sound effects and large smiles it is a great performance for all.

★Q&A with performers May 5th 18:00 Small Hall of Busan Citizen's Hall

Actor : Lee Jun Soo, Ahn Hwi Jun, Kim Hyun Jin, Yum Sun Hwa

학수고대 Anticipation

BIPAF OPEN Family



한국 / 80분 / 전체관람가
5.6(목) 20:00 ~ 5.7(금) 20:00 ~ 5.8(토) 19:00
문화골목 용천지랄소극장 소극장

Korea / 80min / G-rated
May 6th(Thu) 20:00 ~ May 7th(Fri) 20:00 ~ May 8th(Sat) 19:00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질기디 질긴 핏줄의 한... 그 끊을 수 없는 굴레 그리고 가족

생선장수인 강학수는 조상 때부터 우연한 계기로 5대째 이어져온 광대의 삶이 너무 싫어 젊은 시절 집을 뛰쳐나와 외동딸 강고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강고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의 꿈을 꾸며 가출한다. 어느 날 강학수에게 날아온 딸의 콘서트 초대장... 아버지 강학수는 딸과 화해를 꿈꾸며 한번도 하지 않았던 집안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한다. 학수의 할아버지때 부터 시작된 광대의 삶을 하나하나 꺼내어 가며 자신과 가족 간의 화해를 시작한다. 광대의 길을 걸어 온, 그리고 거부하고자 했던 4대 가족의 인생사를 놀이와 드라마에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풀어낸다. 놀이와 재담, 해학과 풍자, 기예가 마당극형식의 구성을 통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며 배우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모노드라마이자 1인 뮤지컬이다.

★관객과의 대화 5.7(금) 20:00 (공연후) 문화골목 용천지랄소극장 소극장

연출 : 서상규 / 출연 : 강학수, 서후석

학수고대
Anticipation

Deep and indestructable resentment for blood relationship... unseparable tie and family

Based on the style of a traveling theater troupe that goes from village to village in Korea this show is a resurgence of traditional Korean theater. Using a wide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puppets, masks, percussion and dance the show is a great example of many Korean drama traditions. It combines modern style with the past. At one point a puppet of current President Lee, Myung Bak makes a brief appearance for some political satire. Virtually a one man show Anticipation is true Korean theater.

Unfortunately for tourists and foreigners the plot is entirely in Korean and much of the great humor and talent will be lost without translation. The show is divided into three stories. The first is of family, the second the unbreakable bond (and often resentment) of blood and family relations and the third, the story of a man who runs away from his caste as the fifth generation of fish mongers to seek his destiny elsewhere.

★Q&A with performers **May 7th 20:00,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Director : Seo Sang Gyu / Actor : Kang Hak soo, Seo Hoo Seok

소극장스��이지

바쁘다 바빠
Eight days a week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Born Ugly

그 남자 그 여자
A Man from Mars, A Woman From Venus

비나리
Binari

BIPAF OPEN
Small Theater
Stage



그남자 그여자



비나리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한국 / 90분 / 전체관람가 / 부산 공간소극장
5.1(토)~ 5.9(일) 평일 20:00/ 토 16:00,19:00 / 일 17:00
공휴일(5/5) 15:00,18:00(월요일 공연없음)
Eight days a week Korea / 90min / G-rated / Busan Gonggan Theater
May 1st(Sat) ~ May 9th(Sun) (No performance on Monday)
Weekdays 20:00 / Sat 16:00, 19:00 / Sun 17:00 / Holiday(May 5th) 15:00, 18:00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한국 / 90분 / 전체관람가 / 청춘나비 소극장
5.7(금) 20:00 ~ 5.8(토) 16:00/19:00 ~ 5.9(일) 17:00
Born Ugly Korea / 90min / G-rated / Cheonchoon Nabi Theater
May 7th(Fri) 20:00 ~ May 8th(Sat) 16:00/19:00 ~ May 9th(Sun) 17:00

비나리 한국 / 80분 / 전체관람가 / 소극장 6번출구
5.2(일) ~ 5.9(일) 주말, 공휴일 17:00 / 평일 20:00
Binari-Korean Traditional Play
Korea / 80min / G-rated / Yukbeonchoolgu Theater
May 2nd(Sun) ~ May 9th(Sun) Weekend, Holiday 17:00 / Weekdays 20:00

그남자 그여자 한국 / 110분 / 11세이상 / 초콜릿팩토리
5.1(토) ~ 5.9(일) 평일 20:00 / 토요일 16:00, 19:00 / 일, 공휴일 14:00, 15:00 (월요일 공연 없음)
A Man from Mars, A Woman From Venus
Korea / 110min / PG-12 / Chocolate Factory
May 1st(Sat), 2010 ~ May 9th(Sun) Weekday 20:00 / Sat 16:00, 19:00 / Sun, Holiday 14:00, 15:00
(No performance on Monday)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바쁘다 바빠

23년을 이어오고 100여 만 명이 관람 한 공연! 풍자와 아이러니 해프닝으로 15초마다 관객을 웃기는 연극!
남녀 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

연출 : 신준영, 홍주완, 박경선, 이준혁, 김도윤, 조인경, 남경화, 김선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맛 나는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 못생겨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 된다!

신데렐라는 하이힐을 택했고, 인어공주는 노출을 택했고, 백설 공주는 잠자리를 택했고, 그녀는 공부를 택했다.
반쪽짜리 가정, 기준치 이하의 관심, 희박한 외모.. 그 종량제 봉투에 담긴 삶 속에서 그녀가 단 한 가지 갈구하는 것 - 사랑...

연출 : 김민우 / **출연** : 박인화, 황하규, 제이슨, 이용택, 변은지, 이태경

그 남자 그 여자

'사랑은 믿음이다' 라는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연극 <그남자 그여자, 순수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음직한 첫사랑, 그 설레는 마음을 그린다. 가슴 절절한 첫사랑, 그 아련한 추억...

연출 : 추상욱 / **작가** : 이미나 / **출연** : 이현동, 채영현, 정서연, 이지은, 홍상훈, 이정건, 김현장, 장진향, 김기환, 정중호

비나리

한국의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한 공연이다.

동해안별신굿과 한국의 가면극, 인형극을 바탕으로 한 전통춤과 소리, 장단을 통한 한국적 토종연극

연출 : 이정남 / **출연** : 심미란, 최현경, 이슬라, 정원혁, 강숙하

Eight days a week

One of the longest running performances ever, having been played more than 10,000 times over 22 years it is a show that looks at the poor people's lives with comedic satire and irony. Audiences are said to laugh an average of every 15 seconds.

Actor : Sin Jun Young, Hong Joo Wan, Park Kyung Sun, Lee Jun Hyuck, Kim Do Yun, Jo In Kyung, Nam Kyung Hwa, Kim Sun Ye

Born Ugly

This play is a romance with a fresh twist. The story is beautiful because it's ugly!

A romance with a fresh twist. It is about the young modern mind, a woman with low attention span and a self centered point of view who only wants one thing; love. She tries to hide her true sorrows behind a beautiful smile.

Director : Kim Min Woo / **Actor** : Park In Hwa, Hwang Hwa Gyu, Jason, Lee Yong Tak, Byun Eun Jee, Lee Tae Kyung

A Man from Mars, A Woman From Venus

Borrowing from the famous book,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that psychologically analyses men and women's different perspectives on love. This play is a love tale told through different languages.

Director : Choo Sang wook / **Wrighter** : Lee Mi na / **Actor** : Lee Hyun dong, Chae Young hyun, Jung Seo Yeon, Lee Ji Eun, Hong Sang Hoon, Lee Jung Gun, Kim Hyun Jang, Jang Jin Hyang, Kim Ki Hwan, Jeong Jong Ho

Binari

Using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s and music this is the tale of the hardships of Korean mother. A woman at the time of her death gets to look upon her life. She sees resentment, a lack of gratitude. This is the tale of loving unappreciated mothers everywhere told artfully through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 art.

Director : Lee Jung Nam / **Actor** : Sim Mi Ran, Choi Hyun Kyung, Lee Sol la, Jung Won Hyuck, Kang Sook Ha

▶ 입장료

구 분	개/폐막 공연		일반 공연
	1층 좌석	2층 좌석	
일 반			15,000
청소년	25,000	20,000	10,000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동반 1인까지 50% 할인 됩니다
- 단체 20인 이상예매 시 20% 할인 됩니다.

▶ 사랑티켓 www.sati.or.kr
 사랑티켓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문화바우처 <http://artstour.or.kr>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공연관람을 지원합니다.

▶ 지정예매처

- 전화 예매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Tel. 051-714-6920
- 온라인예매처 : 팝부산 www.popbusan.com
- 오프라인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구매가능

▶ 입금 계좌번호 안내

- 부산은행 : 095-01-023021-9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 현매는 당일 공연에 한하며, 해당극장 티켓부스에서만 가능합니다.

▶ 소극장 스테이지공연
 예매는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그남자 그여자」 051-621-4005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051-626-3703
 「바쁘다 바빠」 02-984-7567
 「비나리」 011-232-1350

▶ Admission

Division	Opening/Closing performance		Other Performance
	1st floor seats	2nd floor seats	
Adults			15,000
Students	25,000	20,000	10,000

- Groups : You get a 20% discount when a group of more than 20 people make a reservation(Phone reservation only)
- Disabled : 50% discount including one more person

▶ Places for Reservation

- Phone Reservation 070-8672-801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http://www.busaninternationalperformingartsfestival.com)
- Internet Reservation Pop Busan www.popbusan.com
- All branches of Busan Bank

▶ Deposit Account No.

Busan Bank 095-01-023021-9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http://www.busaninternationalperformingartsfestival.com)

▶ Ticket purchase at the performance venue is good only for the day of performance, and it is possible only at the ticket booth of the performance theater.

▶ Following performances are be operated directly from each theater companies.

「Man from Mars, Woman from Venus」 051-621-4005
 「Born Ugly」 051-626-3703
 「Eight Days a Week」 02-984-7567
 「Binari (Korean traditional plays)」 011-232-1350

BIPAF TOGETHER

10분 연극제 The 10 Minute Open Plays

BIPAF 워크숍 BIPAF Workshop

BIPAF 투어 BIPAF TOUR

관객과의 대화 Q&A with performers

BIPAF ZONE BIPAF ZONE

청소년 연극캠프 Summer Theater Camp for Youth

10분 연극제

나도 연극배우!! 10분 동안 내 모든 걸 보여주겠다.

장르에 관계없이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우가 되는 시간. 국내 유일의 일반인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의 경연장이자 화합의 한마당이 될 10분 연극제는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10분 연극제가 <청소년부>, <대학, 일반부>로 각각 나뉘어 펼쳐지며 시상 또한 각 분야별로 이루어집니다. 10분 연극제 전 공연은 일반관객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행사
일정

예선심사일정 : 5월 2일(일)~3일(월), 5일(수)
본선진출발표 : 5월 6일(목) 오후 5시 각 부별 5개 단체 본선진출
본선 경연 : 5월 9일(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극장(무료관람)

시상
분야

각부별 조직위원장상, 집행위원
장상, 경성대 총장상, 인기상, 팝
부산특별상, 퍼펙트상 등



The 10 Minute Open Plays

Anyone who loves the performing arts regardless of genres can be an actor. It is the one and only creativity program in Korea for average people. The 10 Minute Open Plays will form a great contest harmony for the citizens. Anyone who loves the performing arts can participate in the program. You can show your potential talents to the fullest without limits on subjects and forms. The 10 Minute Open Plays is divided into 「Adult」, 「Student」 and 「Youth」 starting 2010, the prizes will be given for each division. Average people get an opportunity to watch the performances for the finals.

Schedule First Round: May 2nd(Sun) ~ May 5th(Wed)

Announcement for Final Contestants: May 6th(Thu), 5 pm, 5 groups from each division will make it to the finals

Finals: May 9th(Sun), 2 pm, Small Hall, Busan Cultural Center (Admission free)

Awards Prizes will be given for each division.

2010 BIPAF WORK SHOP

비파프 워크숍

워크숍 소재, <도미부인> Workshop Subject, <The Wife of Domi>

<도미부인>은 한국 민담으로, 인간의 권력욕과 이에 대항하는 평범한 인간, 그리고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민담이라는 표면적 형태는 다르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래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다.

- ◆ 일 시: 2010년 4월 29일(목)~5월 9일(일) / 13:00~16:00
- ◆ 장 소: 경성대학교
- ◆ 참가대상: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인(현역배우 및 전공자)
- ◆ 참가인원: 초·중·고등학교 15명 이내 / 전문인 15명 이내
- ◆ 워크숍 초청강사소개: 니콜라 피안졸라(Nicola Pianzola) - 공연자(이태리)
아나 도라 도르노(Anna Dora Dorno) - 감독 및 배우(이태리)



[The Wife of Domi] is a Korean folktale, that shows human desire for power, our resistance against it and the genuine bond between husband and wife. On the surface, it is a simple Korean folktale, but the real essence of the play is timeless and known the world over. Audiences feel great empathy with the human condition.

Period April 29th(Thu), 2010 - May 9th(Sun) / 13:00-16:00

Venue Building 22, Kyungsung Univ.

Target Participan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experts (actors and theater majors)

Number of Participants No more than 15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20 experts

Introduction of the Guest Instructors Nicola Pianzola - Performer (Italy), Anna Dora Dorno - Director and Actress (Italy)

Seminar

초청강연회

- ◆ 일 시 2010년 5월 4일 15:00-17:00
- ◆ 장 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 김동규(기조강연)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 국제공연예술 교류 연합회 회장
- 2. 그렉 제르망(Greg Germain)
-프랑스 아비뇽 OFF축제 집행위원장
-연극배우, 연출가 -프랑스 해외방송 위원회 위원
- 3. 이사벨라 쾰비스카(IZABELLA CYWISKA)
-전 폴란드 문화예술 장관 -바르샤바 아테네움 극단 예술 매니저
- 4. 자유 질의 토론

Schedule May 4th, 2010 15:00-17:00

Venue Small Hall, Busan Cultural Center

1. Kim, Dong Kyu(Keynote Speech)

- Festival Director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President of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Exchange Association

2. Greg Germain

- President of Festival OFF d'Avignon, France
- Theater Actor, Director
- Member of the French Foreign Broadcasting Committee

3. IZABELLA CYWIŃSKA

- Former Minister of Polish Culture & Arts
- Artistic Manager of the Athenaeum Theatre in Warsaw

4. Q & A

관객과의 대화

난 도저히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 물어보세요~~
공연이 끝난 뒤 공연자와 관객이 작품에 대한 느낌과 궁금증을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는 공연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공연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

- ▶ 일정 및 시간은 **작품소개 페이지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A with performers

Intrigued, curious or just have a question? This is your opportunity to ask anything you want to the performers and directors!

Talk with the Audience is a time for performers and audience members to interact, share questions and reactions about the performance after the show. This part of the festival gives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have a discussion with the performers to understand each show better!

- ▶ You can check [the schedule](#) on the page of the work introduction.

축제를 즐겨라 BIPAF ZONE!!

“한번 와서 푹~~ 빠져 봐야 아~~~이래서
BIPAF ZONE에 오는 구나 할꺼야~~”

공연자와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교류의 장, 대화의 장인 BIPAF ZONE. 축제 안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소통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기는 공간

- ◆ 운영일시 : 2010.5.1(토)~5.9(일)/13:00~22:30
- ◆ 쿠폰 운영
 - 쿠폰 사용기간 : 2010. 5. 1(토)~2010. 5. 9(일)
 - 쿠폰 사용점 : 문화골목 일대 2곳
(민속주점 고방), <일식주점 탄탄>

※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전 극장에서 쿠폰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쿠폰있으면 굉장하!! BIPAF쿠폰을 가져오세요.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Enjoy the festival at BIPAF ZONE!!

Once you visit BIPAF ZONE,
you won't leave!

It's a great chance to talk with the performers and actors and really understand the shows.

- ◆ Schedule May 1st(Sat), 2010 - May 9th(Sun)/13:00-22:30
- ◆ Coupon
 - Coupon Use : May 1st(Sat), 2010 - May 9th(Sun), 2010
 - Coupons can be used at 2 bars in culture alley, Kobang and the Japanese bar TanTan.
- ※ A coupon event will be held at the all performance theaters. Coupons are for free food. Bring the BIPAF coupon to venues and you can use the coupons instead of cash.

2010 BIPAF 청소년 여름 연극 캠프

2010 Summer Theater Camp for Youth

부산국제연극제 청소년 여름 연극 캠프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다양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를 기르고 무한한 상상력과 협동심 사회성을 고취하고 자신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010부산국제연극제 청소년 여름 연극캠프에 세계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프로그램 소개: 10분 연극제 / 즉흥연기 / 전통연희 동래야류 / 거리공연 / 공연관람

◆ 일정 및 대상

행사기간: 2010년 7월 19일(월) ~ 7월 23일(금)

참가대상: 연극에 관심 있는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국외 -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은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모집인원: 100명

※ 자세한 사항은 BIPAF 홈페이지 www.bipaf.org에서 확인 하세요.



The Summer Theater Camp for Youth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welcoming all the young enthusiastic participants from inside and out of Korea. Through the various theatrical methods, the camp raises open minded attitude, enhances unlimited imagination, team works, social activities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find the undiscovered talents. Beginning with the 1st Youth Camp in 2009, We're looking forward to your attending the Youth Summer Camp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th the cooper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in Busan Metropolitan city yearly.

Introduction The 10 Minute Open Plays/Improvisation/Traditional dance and music, Dongnaeyaryu/Street Performance/You can have fun of watching great performances.

Schedule July 19th(Mon), 2010 ~ July 23rd

Participants Youths who are interested in the theater aged from 14 to 18 Foreigners aged from 15 to 18 who can be selected by Competent Authorities

Number of participants 100

※ Visit www.bipaf.org for mor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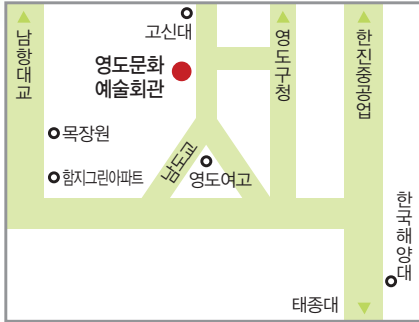
2010 BIPAF TOUR 비파프 투어

축제 기간 중 초청된 작품 가운데 예술성과 대중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전국 투어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부산국제연극제의 지명도를 높이고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의 자생력을 창출한다. 2010년 BIPAF TOUR는 부산 영도 문화회관에서 5월 9일 프랑스 <쉐도우 오케스트라>가 공연된다.



◆ 일시: 2010. 5. 9. 15:00 영도문화예술회관 ◆ 가격: 일반 15,000 청소년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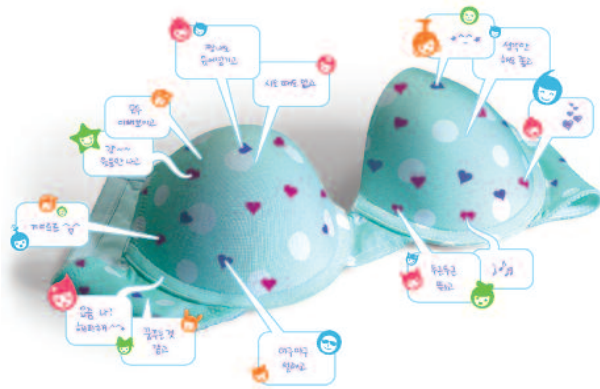
◆ 부산 영도 문화회관 오시는 길



Every year some of the best performances from the festival are chosen for their artistry and popularity and invited to perform across the nation. This help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become well-known throughout Korea and helps its fame spread. For the BIPAF TOUR in 2010, [The Shadow Orchestra] from France will begin their BIPAF Tour with a performance on May 9th at Busan Yeungdo Cultural Center.

◆ Period May 9th(Sun) 2010 / 15:00 Yeoung-do culture arts Hall

인간?
보름?
서늘하고
두근거려!



요즘, 너를 말해봐



Daum yozm은?

150자의 짧은 글과 사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구와 즐거운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HAEUNDAE
CENTUM
HOTEL

www.centumhot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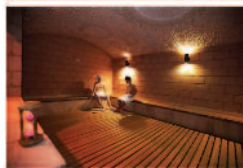
HAEUNDAE CENTUM HOTEL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

고객님의 성공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편안한 휴식,
해운대센텀호텔은 내집과 같은 편안함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레지던스호텔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곳 해운대센텀호텔

- 543개의 객실보유 고객 취향을 세분화한 다양한 타입의 객실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 용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중소 규모의 미팅룸 및 비즈니스 센터
- 피트니스 센터와 화산식 사우나 시설 완비
-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총 500대의 넓은 주차공간
- BEXCO 도보2분 거리 유명관광지 및 쇼핑센터 밀집지역에 위치



Only For You!

예약문의 051.720.9000 1505,U2-DONG, HAEUNDAE-GU, BUSAN, KOREA, 612-022



Busan Youth Hostel
ARPINA

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아르피나”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부담없는 다양한 객실
격조높은 연회장과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웨딩 및 각종행사
사우나 찜질방과 골프, 헬스, 수영, 요가 등 종합스포츠센터
청소년의 열린공간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벡스코(BEXCO) 바로 옆 해운대에서
부산유스호텔 “아르피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지SMART CARD의 특성

- **친환경적 가치 :**
한지 SMART CARD는 일반 PVC(환경유해소재)에 비해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
-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 :**
한지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 지정되어 각 부처에서 활성화 추진중
- **독점적 가치 :**
한지는 국내에서만 생산 가능한 제지로서 현재 사용되어지는 전세계의 카드 재질 변경시 독점적인 제품 우위성
- **표현의 우월성 :**
한지만의 한군데도 같은곳이 없는 다양한 질감의 표현과 스머듬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표현기법은 기존 카드 인쇄와의 차별
- **마케팅의 독창성 :**
우리전통문화의 우수성 및 독창성이 만들어 낸 전세계 유일무이한 제품
우리선조들의 우수하고 과학적인 정인정신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

한지 SMART CARD 및 제조방법 특허인증

특허번호 : 특허 제 10-0697844 호
발명의 명칭 : 한지를 이용한 알에프아이디카드 및 그 제조방법

친환경 한지 카드 LOHAS인증 획득

Sample



듀얼 RFID 카드

- **900MHz tag의 기능**
- 최소 3m이상의 tag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 ID인식 또는 제품인식에 주로 사용
- **13.56MHz tag의 기능**
- 전국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tag로서 tag삽입 시 교통기능 탑재 가능
- **IC chip**
- 금융IC, 전자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용 가능
- IC chip 관련 Application 사용가능
- 기존의 RFID Card는 각 주파수 당 카드 1장으로 제조하여 카드를 생산하는데 반해 Dual Frequency Card는 주파수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1장의 카드 내에 다른 종류의 Tag가 삽입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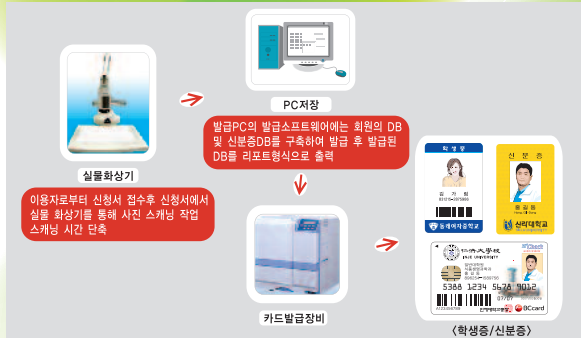
RFID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특허번호 : 특허 제 10-0682590 호
발명의 명칭 : 주파수 간섭현상을 제거한 이중의 알에프아이디 태그가 혼재된 아이에스오 카드

Sample



교통카드겸용 학생증 발급 시스템



발급장비

Sample



**Dynamic
BUSAN**

28th
Korea Theater Festival
BUSAN

다이너믹 스테이지 영혼의 울림

제 28 회 전국연극제

전국연극제

28th
Korea Theater Festival
BUSAN

2010. 6. 11. ▶▶ 6. 30.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내 소극장, 광안리 해수욕장

주최: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한국연극협회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제28회 전국연극제 사무국 051-638-1935-7 www.28ktf.com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President

허남식[부산광역시 시장] Huh Nam Shik

김동규[집행위원장] Kim Dong Kyu

허 은[부집행위원장/경성대학교 교수] Huh Eun

김동석[부집행위원장/(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Kim Dong Seok

이철형[부산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Lee Cheol Hyung

천판상[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장] Cheon Pan Sang

설동근[부산광역시 교육감] Seol Dong Geun

강남주[부산문화재단 이사장] Gang Nam Joo

신정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 Shin Jung Taek

이장호[(주)부산은행장] Lee Jang Ho

이용흠[일신설계 회장] Lee Yong Heum

김용호[영산대학교 교수] Kim Yong Ho

박해란[동서대학교 교수] Park Hae Ran

신일수[전)한양대학교 교수] Sin Il Su

이문섭[(사)부산문화관광축제집행위원장] Lee Moon Seop

최화수[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Choi Hwa Su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Lee Yong Gwan

손 숙[전문문화부장관] Son Sook

김정옥[얼굴박물관 관장] Kim Jeong Ok

최상윤[(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지회장] Choi Sang Yun

최주봉[배우] Choi Joo Bong

전성환[원로 연극인] Jeon Seung Hwan

박인환[배우] Park In Hwan

배 용[디자이너] Bae Yong

김재선[디자이너] Kim Jae Seon

박태성[부산일보 논설실] Park Tae Sung

장병윤[국제신문 논설실] Jang Byoung Yun

감사 Auditor

신창주[세무법인 창신] Shin Chang Joo

신원삼[법무법인 하늘] Shin Won Sam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김동규 Kim Dong Kyu

부집행위원장 Deputy Director

허 은 Huh Eun

김동석 Kim Dong Seok

이종근[동서대학교 교수] Lee Jong Gun

김남석[부경대학교 교수] Kim Nam Seok

고인범[배우] Ko In Beom

권 철[배우] Gwon Cheol

김익현[극단 도깨비 대표] Kim Ik Hyun

이정남[극단 맥 대표] Lee Jung Nam

박태남[조은극장 대표] Park Tae Nam

김재우[경상대학교] Kim Jae Woo

박래희[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Park Lae Hee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전성환[극단 전위무대 대표] Jeon Seung Hwan

신태범[(사)요산기념사업회] Shin Tae Beom

이성규[부두연극단] Lee Seung Gyu

박원철[부산문화회관 공연과장] Park Won Cheol

허영길[극단 사계] Heo Young Gil

권명준[극단 예사당] Gwon Myung Joon

김문홍[원로 연극인(극단 한새별)] Kim Moon Hong

사무국소개

Introduction of BIPAF Office

BIPAF STAFF

사무국장 Financial Manager

이현빈 Lee Hyun Bin

총무팀장 General Affairs Manager

최현지 Choi Hyun Ji

총무팀 General Affairs Coordinator

김영린 Kim Young Rin

대외협력팀장 International Affairs Manager

박소양 Cindy PARK

대외협력팀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구윤정 Ku Yoon Jung

기획팀장 Planning Manager

남현주 Nam Hyun Ju

기획팀 Planning Coordinator

정지혜 Jung Ji Hye

홍보팀 PR Coordinator

박재현 Park Jae Hyun

임보라 Lim Bo Ra

행사진행팀 Project Coordinator

김상윤 Kim Sang Yun

서현인 Seo Hyun In

손병태 Sohn Byung Tae

행사지원팀 Events Coordinator

신지운 Shin Ji Woon

조재현 Cho Jae Hyun

이민호 Lee Min Ho

무대감독 Stage Manager

장훈석 Jang Hoon Seok

장기훈 Jang Ki Hoon

권경환 Kwon Kyung Hwan

무대제작 Set grips

황경호 Hwang Kyung ho

박기식 Park Ki Shik

유황용 Yoo Hwang Yong

사진팀 Picture

신원용 Shin Won Yong

백성현 Baek Sung Hyun

양동욱 Yang Dong Wook

장훈우 Jang Hoon Woo

안영환 Ahn Young Hwan

영상팀 Video

김은경 Kim Eun Kyung

허새롬 Huh Sae Rom

이혜경 Lee Hye Kyung

이재평 Lee Jae Pyung

문설빈 Moon Seol Bin

김민엽 Kim Min Yeop

방선협 Bang Seon Hyup

조재현 Cho Jae Hyun

자원봉사자 Volunteer

대외협력팀

International Relations

고민정 Goh Min Jeung
김고은 Kim Go Eun
김초롱 Kim Cho Rong
김현민 Kim Hyun Min
남호석 Nam Ho Seok
안수경 Ahn Soo Gyung
유민아 Yu Min A
이소정 Lee So Jeong
이유리 Lee Yu Ri
이혜린 Yi Hye Rin
장선우 Jang Sun Woo
전아름 Jeon Ah Reum
전태량 Jeon Tae Ryang
조한미 Cho Han Mi
최애진 Choi Ae Jin
최윤희 Choi Yoon Hee
홍지향 Hong Gee Hyang
황지현 Hwang Ji Hyun

홍보팀

Public Relations

강윤정 Kang Yun Jeong
강종진 Kang Jong Jin
곽수지 Kwak Su Ji
김익하 Kim Ik Ha
안구영 An Gu Young
이미지 Lee Mi Ji
이승준 Lee Seung Jun
이정현 Lee Jung Hyun
현정은 Hyun Jeong Eun

티켓팀

Ticket

김국희 Kim Kook Hee
김세진 Kim Se Jin
김수영 Kim Su Young
김슬예 Kim Seul Ye

김현지 Kim Hyeon Ji
김혜연 Kim Hye Yeon
박성진 Park Sung Jin
백경진 Baek Kyeong Jin
손수연 Son Su Yeon
심미은 Shim Mi Eun
양미선 Yang Mi Sun
유혜경 Yoo Hye Kyung
이종순 Lee Jong Soon
이청훈 Lee Chung Hoon
장지연 Jang Ji Yun
전민수 Jun Min Soo
조아영 Jo A Young
조용호 Cho Yong Ho
허승윤 Heo Seung Yun

10분 연극제팀

The 10 minute open plays

강인성 Kang In Sung
김민정 Kim Min Jeong
옥경진 Ok Kyoung Jin
이재열 Lee Jae Yeol
황덕현 Hwang Deok Hyeon

무대지원팀

Stage

권용진 Kwon Yong Jin
김병구 Kim Byoung Gu
김상국 Kim Sang Kuk
김석민 Kim Seok Min
김주희 Kim Ju Hee
라은지 Na Eun Ji
박정민 Park Jeong Min
박주형 Park Ju Hyoung
안유강 Ahn You Gang
윤모수 Yoon Mo Soo
이강희 Lee Kang Hee
이경숙 Lee Kyung Sook
이상현 Lee Sang Heon

이영미 Lee Young Mi
이홍근 Lee Hong Gun
임지선 Lim Ji Sun
전예솜 Jeon Ye Som
조보경 Jo Bo Kyung
지창욱 Ji Chang Wook
최원일 Choi Won Il
허재성 Heo Jae Sung
현태열 Hyun Tae Yul

의전팀

Transportation

구홍서 Koo Hong Seo
권순준 Kwon Soon Jun
남옥준 Nam Wook Jun
정태진 Jeong Tae Jin
현홍래 Hyun Hong Lae
홍위용 Hong Wi Yong

총무팀

General Affairs

이강훈 Lee Kang Hoon
박우경 Park Woo Kyung

비파프존팀

BIPAF ZONE

김광희 Kim Gwang Hee
김윤정 Kim Yun Jung
이진우 Lee Jin Woo
이혜경 Lee Hye Gyeong
전아라 Jeon Ah Ra
정다운 Jeong Da Woon
정순미 Jeong Sun Mi
정재훈 Jung Jae Hun

안내데스크팀

Information desk

강은하 Kang Eun Ha
김영란 Kim Young Ran

김인선 Kim In Seon
김종경 Kim Jong Kyung
김혜정 Kim Hye Jung
김희진 Kim Hee Jin
박소연 Park So Eon
박재선 Park Jae Sun
변아영 Byun A Young
이은정 Lee Eun Jeong
이지현 Lee Ji Hyun
장현규 Jang Hyun Kyu
하가영 Ha Ga Young
한우만 Han Woo Man

어린이 홍보대사

Young Festival Ambassadors

강민지 Kang Min Ji
구수빈 Goo Soo Bin
김선빈 Kim Sun Bin
김소민 Kim So Min
김승화 Kim Seung Hwa
김종익 Kim Jong Ik
김주아 Kim Joo A
박영우 Park Young Woo
반예진 Ban Ye Jin
서영인 Seo Young In
손해진 Son Hae Jin
송지호 Song Ji Ho/Emily Song
신유진 Shin Yu Jin
신지성 Shin Ji Seong
유찬주 Yoo Chan Ju
이수경 Lee Soo Gyung/Isabella Lee
이찬재 Lee Chan Jae
이혜원 Lee Hye Won
장한나 Jang Hanna
허지은 Huh Ji Eun
홍연재 Hong Yeon Jae

Yes! **KS**

알수록 **놀라운** 대학!

부산경상대학

Knowing, Surprising! Kyung Sang!

- 2010 글로벌 현장실습 선정대학[교육과학기술부]
- 2010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선정대학[부산광역시]
- KS글로벌 인재 장학프로그램 운영대학



희망의 싹 ...
열정으로 키웁니다.

NAVER

부산경상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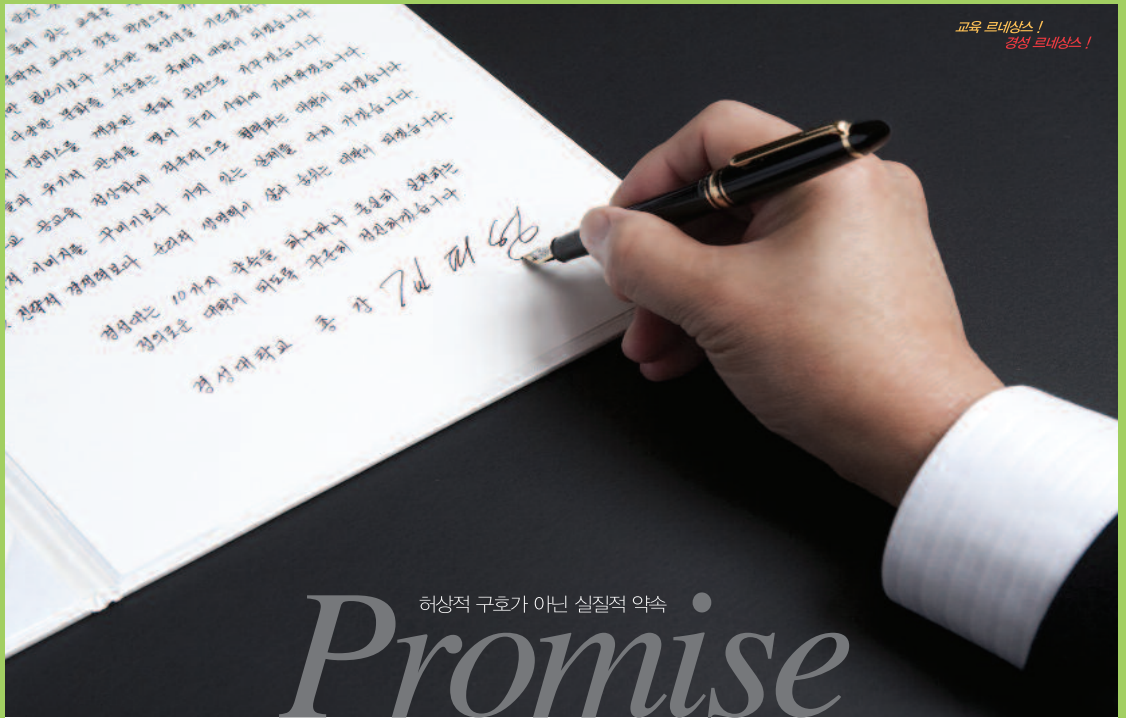
www.bsks.ac.kr

학교법인
한신학원

 부산경상대학
BUSAN KYUNGSANG COLLEGE

 화신사이버대학교
HWASHIN CYBER UNIVERSITY

 부산외국어고등학교
PUS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허상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약속

Promise

경성대학교가 드리는 열 가지 약속

- 첫 번째 _ 가장 앞선 선도 대학보다 더욱 알찬 충실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_ 의미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흥미 있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 세 번째 _ 실무적 지식과 함께 인문학적 교양도 갖춘 학생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 네 번째 _ 우수한 신입생 선발에만 힘쓰기보다 우수한 졸업생을 기르겠습니다.
- 다섯 번째 _ 세계적 대학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국제적 대학이 되겠습니다.
- 여섯 번째 _ 생태적 차원에서 캠퍼스를 깨끗한 문화 공원으로 가꾸겠습니다.
- 일곱 번째 _ 지역 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_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 아홉 번째 _ 외적 이미지를 꾸미기보다 가치 있는 실체를 다져 가겠습니다.
- 열 번째 _ 전략적 경쟁력보다 순리적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경성대학교는 10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충실히 실천하는 정의로운 대학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www.bipaf.org